碩士學位論文

제주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

-회천마을 사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玄 惠 慶

1998年 12月

제주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

-회천마을 사례-

指導敎授　　趙 誠 倫

玄　惠　慶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12月

玄惠慶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8年 12月

The Change of Ancestor Workship in Cheju Farm Village

Hye-Kyong Hyun
(Supervised by Professor Sung-Yo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8. 12.

목 차

Ⅰ. 서 론: 문제의식과 연구주제 ····· 1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 4
1. 이론적 배경 ····· 4
2. 기제사의 구성요소 ····· 6
3. 연구방법 ····· 16

Ⅲ. 조사대상 개관 ····· 19
1. 동회천 마을 ····· 19
2. 서회천 마을 ····· 22
3. 조사대상자 선정 ····· 24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6

Ⅳ. 혈연공동체의 변화와 기제사 ····· 33
1. 혈연공동체의 변화 ····· 33
2. 인적 요소의 변화와 기제사 ····· 35
3. 물적 요소의 변화와 기제사 ····· 48

Ⅴ.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기제사 ····· 62
1. 마을공동체의 변화 ····· 62
2. 인적 요소의 변화와 기제사 ····· 64
3. 물적 요소의 변화와 기제사 ····· 65

Ⅵ. 결 론 ····· 68

〈참고문헌〉 ····· 70

〈감사의 글〉 ····· 7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표 목차〉

〈도표 Ⅱ-1〉 기본 도식 1 ····· 6
〈도표 Ⅱ-2〉 기본 도식 2 ····· 6
〈도표 Ⅱ-3〉 기제사 공동체의 범위 ····· 9
〈도표 Ⅱ-4〉 제를 집행하는 시간 ····· 11
〈도표 Ⅱ-5〉 기제사 구성의 세부적 요인들 ····· 15
〈도표 Ⅱ-6〉 구체적 도식 ····· 17
〈도표 Ⅵ-1〉 기제사가 생산하고 있는 자원의 변화 ····· 69

〈표 목차〉

〈표 Ⅲ- 1〉 조사대상자 산출 내용 ····· 25
〈표 Ⅲ- 2〉 조사 가능한 가구수의 실제 확정 조사대상 가구수에 대한 비율 ···· 26
〈표 Ⅲ- 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 28
〈표 Ⅲ- 4〉 조사대상 가구의 연수입 ····· 29
〈표 Ⅲ- 5〉 조사대상자의 연령 ····· 30
〈표 Ⅲ- 6〉 조사대상자의 학력 ····· 31
〈표 Ⅲ- 7〉 조사대상자의 종교 ····· 32
〈표 Ⅲ- 8〉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가구주들과 마을거주 연수의 관계 ···· 32
〈표 Ⅳ- 1〉 기제사의 대상 ····· 36
〈표 Ⅳ- 2〉 직접 대면 가능한 조상 ····· 37
〈표 Ⅳ- 3〉 기제사에 참여하는 친척들의 최대 촌수 ····· 39
〈표 Ⅳ- 4〉 기제사를 처음 맡은 당시와 현재 달라진 점 ····· 39
〈표 Ⅳ- 5〉 참여자의 촌수 변화 ····· 40
〈표 Ⅳ- 6〉 헌관 및 집사의 형태 ····· 40
〈표 Ⅳ- 7〉 집사 선정 배경 ····· 41
〈표 Ⅳ- 8〉 제법의 전수 형태 ····· 4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 9〉 집사 선정 배경-'참여자수가 부족하여...' ····· 43
〈표 Ⅳ-10〉 최근 2년간 기제사 때 논의되었던 주제들 ····· 44
〈표 Ⅳ-11〉 주관자들의 기제사 승계방식 ····· 46
〈표 Ⅳ-12〉 제월전 상속 ····· 46
〈표 Ⅳ-13〉 기제사를 맡을 당시의 느낌 ····· 47
〈표 Ⅳ-14〉 '기제사 분할로 다른 형제가 맡았으면...' ····· 47
〈표 Ⅳ-15〉 기제사 봉제 시간 ····· 49
〈표 Ⅳ-16〉 육지부와 제주지역의 제수 차이 ····· 50
〈표 Ⅳ-17〉 제주지역의 제수 변화 ····· 52
〈표 Ⅳ-18〉 부조를 받고 있는 형태 ····· 54
〈표 Ⅳ-19〉 현재 지내고 있는 무속제들 ····· 57
〈표 Ⅳ-20〉 기타 무속제의 현황 ····· 58
〈표 Ⅳ-21〉 이전에 지내다 현재 지내지 않고 있는 무속제 ····· 58
〈표 Ⅴ- 1〉 주반 나눔 현황 ····· 6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진 목차〉

〈사진 Ⅳ-1〉 제수의 변화 ····· 53
〈사진 Ⅳ-2〉 제사방의 전경 ····· 59
〈사진 Ⅳ-3〉 조왕제의 각종 형태 ····· 60
〈사진 Ⅳ-4〉 고팡제의 각종 형태 ····· 60

SUMMARY

Now, Confucian ancestor workship of every day life is very important rite in cheju island. Many people accept it affirmatively and perform it without hesitation in cheju society. Universal ancestor workship is associated with the masses, who began it at least two hundred years ago, but universal ancestor workship has included hegemony on the change of socity. In cheju socity, the change of ancestor workship has been progressing since 1980's rapidly. Human factor and material factor of ancestor workship have made a change. It is showed that the change of society is reflected in ancestor workship.

This thesis looks about how ancestor workship has been progressed in Hoi-cheon farm village. Hoi-cheon farm village is in the suburbs of cheju city. The change of society and ancestor workship is easy to survey in Hoi-cheon farm village.

As a result of survey, human factors include objects, participants, themes of ancestor workship and material factors include a place, mutual aid, things used in the sacriticial services of ancestor workship. All of these factors have been changing continously.

In general, ancestor workship has been changing and adjusting itself to the industrial society. Specially the territorial character has been disappearing and blood relationship has been emphasizing in the change of ancestor workship.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문제의식과 연구주제

현재 제주지역사회에 있어서 집안의 기제사의례(忌祭祀儀禮-이하 기제사)는 매우 중요한 일상의 의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 많은 지역주민들은 기제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기제사를 행사함에 주저하지 않는다.

기제사가 일반 민중들에게 보편적인 일상생활로 대두된 것은 2백년 남짓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기제사가 그다지 보편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제사는 조선이 개국한 지 1백년이 지난 뒤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유교경전을 공부하고 과거에 합격한 사대부들까지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조성윤, 1998). 그러던 기제사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17세기 후반부터 사림파에 의한 국가 재정립의 차원에서 관혼상제(冠婚喪祭)등의 사례(四禮)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8세기에 이르러 권력에서 소외된 지방 사족들이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비책으로 이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安浩龍, 1997: 7). 그러나 기제사는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모시게 되어 있었는데, 당상관 이상은 4대봉사(四代奉祀), 하급 관원은 3대봉사(三代奉祀), 일반 평민들은 2대봉사(二代奉祀)를 모시도록 되어 있었다(조성윤, 1998: 30-31). 따라서 기제사를 모두 모시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제사의 대상은 기제사 주관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적이었다.[2] 그러던 것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분제의 해체를 겪으면서 이미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상인과 상층 농민들 중 일부가 주자가례를 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사대부와 동등한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1)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곧 기일에 행하는 조상숭배의 의례로 최근덕(1986: 179-180)은 기(忌)는 금(禁)으로 추모하는 마음을 가다듬어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2) 기제사 주관자를 두고서 주재자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제를 집행하는 범위에만 국한되는 의미여서 실상 기제사를 마련하고도 제를 집행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가구주들도 있어서 폭넓은 범위의 언어로 주관자라고 표현하였다. 본 연구가 보고자 한 것도 제를 집행하는 제관들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제사를 마련하고 있는 가구주들을 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제사에도 4대봉사의 보편적 계기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기제사는 일상의 의례로써 자리를 잡아나갔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제사에 대한 신분적 차등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다만 육지부와 더불어 일어나는 19세기 후반의 신분제 해체가(김동전, 1997)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기제사를 보편적 의례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의례라는 것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면서 변화된 사회의 헤게모니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제주지역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던 4·3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기제사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주목할 만 하다. 정치적 사건이었던 4·3은 제주농촌마을의 공동체 붕괴를 비롯하여 혈연공동체의 붕괴, 남저여고(男低女高)의 성비(性比) 불균형, 생계농업 경제의 파탄 등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붕괴를 가져왔으며[3] 이 사건은 기제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해안마을에서나 간간이 보이던 합제(合祭)와 당일제(當日祭)의 형태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중산간 농촌마을에서 나타나는가 하면[4] 기제사를 맡아서 하던 주관자들이 죽고 없어지자 제사승계를 무당에게 의뢰하는 모습 등은 사회의 수난이 기제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5] 무엇보다 80년대에 이르러 환금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의 1차 산업구조 변화와 관광산업을 위시한 도시중심의 3차 산업의 발달은 제주지역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면서(전경수·한상복, 1996) 제주지역의 농촌마을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인간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합리성과 시장의 메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1962-3년 사이에 실시된 4·3 이재민 귀농정착 사업으로 중산간 마을이 복구되면서 양잠단지, 주축단지, 과수원 등이 조성되고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이전 마을공동체의 성격이 상당 정도 변화하였다. 신행철·강세현(1998: 492) 참조.

4) 합제는 기제사때 둘 이상의 죽은 조상을 같이 모시는 것으로, 많이 행해지는 합제는 부부합제이며, 부부합제도 부부가 돌아가신 기일이 한달 이내인 경우에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4·3이후에 나타나는 합제는 형제들이나, 부모와 자식 등 그 관계를 가리지 않고 4·3에 죽은 조상들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돌아가신 기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 대충 기일을 정해 행하는 합제의 형태가 많다. 특히 돌아가신 기일이 언제인지 몰라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을 정하여 기제사 의례를 행할 때에는 당일제를 지낸다. 당일제는 자시가 넘어서 제사의례를 행하는 것과는 달리 자시 이전에 행하는 의례라 하여 당일제라 한다.

5) 기제사 승계와 관련한 무속의 참여는 제사승계를 할 후손이 없을 경우, 무당을 찾아가 누가 제사 승계를 해야 하는지 점을 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집안의 기제사 승계자를 무당이 정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니즘을 바탕에 둔 혈연 및 마을공동체의 관계로 설명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사회의 변화는 기제사를 구성하던 인적·물적 요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기제사가 시장의 메커니즘에 놓이는 시점인 1980년대 이후에 주목하고 사회변화가 혈연공동체와 마을공동체, 기제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기제사의 변화는 혈연 및 지연자원 생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려 한다.[7)] 이를 토대로 기제사가 산업사회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 연구가 성공적이라면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례만을 두고서도 우리는 해당사회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제사의 변화를 어느 지역보다 잘 관찰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인 회천마을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

6) 대체로 1차 산업 내의 구조변화는 현금수입원이 되기 시작한 '귤' 환금작물과 연관된다. 전통적인 생계경제만을 위해 농사를 해오던 제주농민들에게 귤작물의 본격화는 교환경제의 시작을 의미했으며, 외부사회의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되는 계기였다(김진영, 1989; 김창민, 1993: 1994; 1995; 이기욱, 1995). 동시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관광산업 중심의 3차 산업의 발달도 사회의 성격을 변형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 통계연보(1997)에 따르면 산업별 취업자 구성도가 1961년에는 1차 산업에 취업인구의 85.7%가 3차 산업에 12.7%의 인구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81년에 이르러서는 3차 산업의 취업인구수가 1976년도에 비해 9.0%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르러서는 3차 산업의 취업인구수가 1차 산업의 취업인구수를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3차 산업의 중심인 제주시에 농촌인구가 이동하면서 농촌마을에서는 인구유출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혈연 및 마을 공동체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제주시 통계연보(1997)에 따르면 제주시 인구추이는 1966년도 18.497명, 1976년도 32.031명, 1986년도 53.186명, 1996년도 80.95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송성대(1985: 241-257)는 1970년대 이후 제주시 인구의 사회증가가 자연증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관광산업이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7) 박영길(1997: 6)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제반 사회활동에서 자원으로서 가장 동원이 용이한 것이 혈연자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강한 연대의식으로 전국 조직은 물론 지방 조직까지 정비되어 있어 새로운 조직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개인의 자원은 유한한데 비해 혈연자원은 무한하다고 하면서 한국사회에 있어서 혈연자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삶과 지식의 심각한 격차는 서양의 세계체제에 의해 기술·문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학문·정신적 영역에까지 서양의 일체적 방식으로 재편되게끔 하여 한국적 학문이 삶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식된 개념들을 그 위에 덧씌우고 그럼으로써 삶과 지식 사이의 거리를 빚어지게 하는 우울한 결과를 야기했다(권귀숙, 1998: 기획의 말을 빌어). 그 결과 일상적 삶 찾기의 노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론 틀에 맞추어 현상을 관찰하기보다는 현상에 먼저 관심을 두고 이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식과 삶의 격리가 아닌 일상적 삶 찾기의 한 분야로써 우리 생활에서 일반 대중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일상적 삶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에서 일상에 대한 연구는 이제껏 가족과 친족,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가족과 친족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김두헌(1969: 1975)의 봉건 대가족과 근대 개별가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 이르러 최재석(1976: 1982: 1986)은 상속, 제사, 문중 등 부계친족에 대한 괄목한 만한 업적들을 남겼고,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동족부락에 대한 김두헌의 연구와 촌락일반에 대한 김경일, 신용하의 논의가 두드러졌다(최길성, 1983).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세대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일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일상에 대한 논의는 거의 대부분 가족과 친족제도, 마을제와 계조직, 해녀 등의 범주에서 국한되어 왔다. 가족과 친족에 대한 연구는 처음 石宙明과 泉靖一 등 일인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이창기, 1997), 1970년대에 이르러서 최재석(1976: 1977a: 1977b: 1978a: 1978b: 1978c: 1979), 현용준(1970a: 1970b: 1973), 김영돈(1966: 1973)의 연구가,

1980년대 이르러서는 김혜숙(1977: 1982: 1983: 1984: 1985: 1986: 1992: 1993), 이창기(1982: 1987: 1991: 1992: 1993: 1995)의 연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마을제에 대한 연구는 현용준의 연구(1996)가 독보적인 연구로 남아 있다. 그는 평생 마을제와 무당, 본풀이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으며, 최근에는 문무병(1984: 1994: 1998)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계조직에 대한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를 포함하여 신행철(1989), 김석준(1986: 1987: 1988)의 연구가 있다. 특히 김석준은 제주농촌마을의 계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신행철은 마을의 권력구조 논의에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녀에 대한 연구는 조혜정(1982), 권귀숙(1996), 안미정(1997)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사라지고 있는 해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의 일상에 대한 연구는 제주농촌마을의 기제사를 혈연성과 더불어 지연성과 같이 결합될 때에 비로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원천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 중 결사체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자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해석의 수준까지 이른 연구는 많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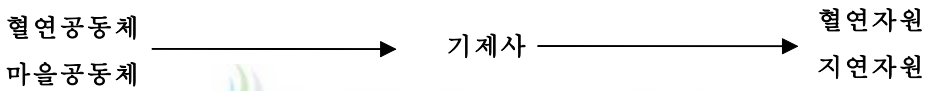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제사에 대한 국외 연구는 조상숭배(ancestor workship)의 차원에서 논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포티스(Fortes, M), 반겐넵(Van Gennep. Arnold)과 로버트 벨라(Bellha, Robert N) 등은 선구적 입장으로, 그들의 연구는 조상숭배를 통해 해당 사회제도와 문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에서의 조상의례에 대한 연구는 유교식 기제사를 중심으로 유교나 동양철학분야에서 다룬 의식의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철학적 의미 부여한 연구들이 다수이며, 대부분 문헌 중심의 연구여서 중국 경전의 연구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길성(1983: 1986)과 강신표(1986) 등,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몇몇 학자들이 사회제도와 문화 그리고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조상제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연구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특별히 외국인 학자 중에 한국의 조상숭배에 대한 연구는 자넬리(Janelli, R)의 연구가 있다. 위의 연구를 토대로 최근에는 재산상속과 기제사 상속을 관련시킨 논의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중국의 기제사를 비교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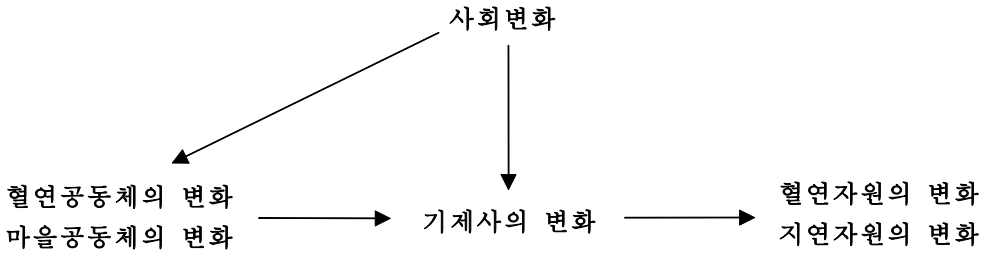
제주지역의 기제사에 대한 연구는 친족·가족의 연구에서 현용준, 김혜숙 등이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창기는 제주지역의 기제사 분할과 재산상속을 분석하면서 기제사 연구의 사회학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학적 틀을 기제사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에 한 발 다가서보려는 시도로 전체 사회변화 속에서 기제사의 변화 모습을 보려했다. 시도를 위해 〈도표 Ⅱ-1〉과 〈도표 Ⅱ-2〉같은 도식을 갖고 제주사회의 변화가 혈연공동체와 마을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기제사에 투입되어 어떠한 혈연자원과 지연자원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분석은 기제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7가지 범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도표 Ⅱ-1〉 기본 도식 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표 Ⅱ-2〉 기본 도식 2



2. 기제사의 구성요소

1) 기제사의 대상

기제사의 대상은 기일제에 후손들이 제를 지내고 있는 수직적 조상대수(代數)의 범위이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4대봉사를 추구하는 경향들을 살필 수 있으나 19세기 전기만 하더라도 기제사는 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신분적 차등에 맞게 그 대상의 범위 또한 차등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전개된 신분제의 해체는 기제사의 차등적 대상의 범위를 동시에 해체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4대봉사는 더 이상 양반 계급만이 누리던 의례가 아니라 일반 민중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행하는 의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 사대부와 동등한 생활방식을 추구함으로써 과거 조상의 사회적 신분에서 오는 열등의식과 불평등을 씻어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통합의 자원동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기존 유교적 신분질서에 의한 혈연자원 동원에 한계가 생겨났고 이것이 신분해체로 이어지면서 다시 기제사에도 전가되어 차등적 의례의 대표적인 4대봉사가 모든 대중들에게 보편적인 의례로 일어나 후손들의 폭넓은 친인척 관계를 엮어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대봉사에서는 6촌까지의 후손들이 한 의례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졌다면, 4대봉사에 이르러서는 10촌까지의 후손들이 한 의례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4대봉사로의 확장은 모든 대중들을 똑같이 일정 정도의 혈연의 단위에서 묶어둠으로써 개별 혈연자원의 동원 수준보다 좀 더 용이한 집단자원적 동원 측면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다시 3대봉사가 일반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자원동원 차원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제사의 참여자

기제사 참여자는 기제사 유형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기제사는 조상과 후손이라는 수직적 관계 및 친인척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참여자들에 의해 모셔진다.[8] 따라서 기제사 참여자의 규모는 기제사 규모

를 의미하기도 하고 참여자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가 기제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의 변화는 제를 모시는 대상의 범위와 관련이 많은 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를 모시는 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면 참여자의 범위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갖는다. 예를 들어 〈도표 Ⅱ-3〉을 보면 증조부의 기제사에는 증조부와 형제 관계에 있는 다른 증조부의 자손들이 기제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기제사 주관자를 중심으로 8촌까지 기제사에 참석한다.[9] 이들 8촌은 증조부 기제사 외에도 기제사 공동체를 이루어 조부나 부친의 기제사에도 참여한다. 그러나 기제사의 최소 범위가 조부까지로 줄어든다면 증조부와의 관계에 있던 혈연들은 참석하지 않고 조부와의 관계에 있던 가족 및 6촌의 혈연 범위만 참여하며 기제사 공동체도 그 범위가 줄어든다.

반대로 참여자의 변화가 대상의 범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촌의 참여범위를 갖고 있던 기제사 공동체가 산업사회 이후 후손들의 결혼주기가 늦어지면서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고조부모의 기제사에 의미를 두지않는다면,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기제사를 지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제사는 8촌 단위로 나눠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기제사 대상과 참여자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것은 다시 헌관과 집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0] 특히 헌관은 대부분 기제사 주관자나 그의 형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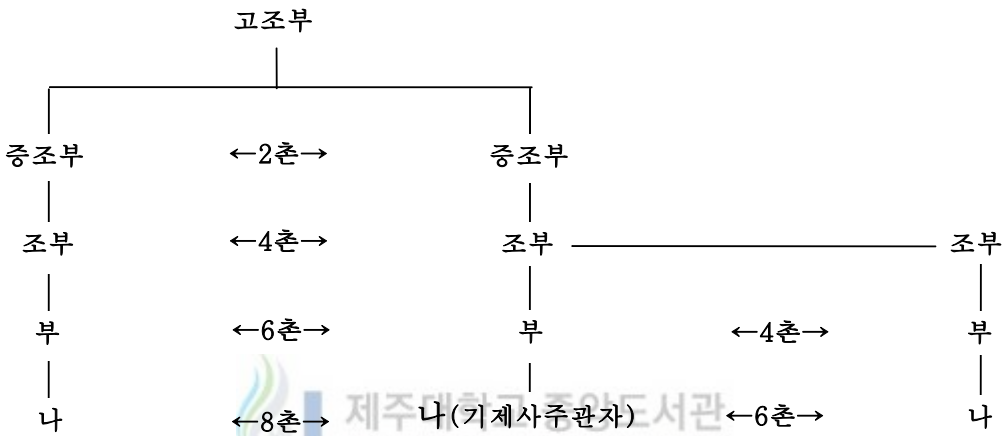
8) 친족의 질서로서, 자신을 중심으로 친족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판단하여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배열되는 친등질서(親等秩序)가 있고, 시조(始祖)로부터 세대가 연속되어 전개되어 나오는 계보질서(系譜秩序)가 있다. 친등질서가 자기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퍼져나가는 것이라면, 계보질서는 시조를 중심으로 파생된 후손 사이에 자신의 친족적 관계를 시조에도 소급시켜 수렴되어 들어가는 인식으로 계보에서 시조로부터 몇 대가 되는 지를 판단함으로써 친족적인 지위의 상하관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계보 속에서 대수(代數)에 따른 상하관계가 밝혀지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질서 있게 모든 친족이 통합체계를 확보한다. 계보질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족보(族譜)가 만들어지며 족보는 친족의 혈연적인 친족관계의 통합의식을 확립하며, 혼인관계에 의한 씨족간의 유대의식을 확인하는데 매우 큰 기능을 발휘한다. 姜信杓(1986: 77) 참조.

9) 여기서는 부계친만을 중심으로 예를 들었다.

10) 헌관(獻官)이라 하면 제사를 지낼 때 제를 집행하는 제관(祭官)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등의 삼헌관(三獻官)이 있고 집사(執事)는 일명 집사관(執事官)이라고 하여 의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보통 기제사는 삼헌관이 모두 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때

들이 서고, 집사는 대부분 나이 어린 사람으로 선정하여 제법을 전수 받도록 함으로써 기제사가 자체적 재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사회변화에 따라 이 재생산체계 또한 변화할 수 있다.

〈도표 Ⅱ-3〉 기제사 공동체의 범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편 제주농촌마을에서 이웃의 기제사 참여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제사에 이웃의 참여는 예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은 노동력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성원으로서의 참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동은 이웃의 성격을 임노동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고 최근에 이르러서 이웃의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신에 직장동료나 작목반 및 친목계 등의 성원들이 기제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참여자의 변동은 그들 참여자들의 네트웍 구성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제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제사 참여자들의 구성 또한 바뀌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기제사가 참여자들로 하여금 동

에 따라서는 초헌관만 서는 단헌관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집사의 경우는 일정한 형태를 찾기는 어려우나 대부분 1명에서 많게는 3명 정도에 이른다.

일한 행위범주와 가치관을 가지도록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웃' 대신 시장상황에서 맺어진 인간관계의 자원들이 동일의례에 참여한다는 점은 시장상황에 필요한 자원간의 관계를 강하게 연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3) 기제사의 승계

기제사 승계(承繼)는 일종의 기제사 양위(讓位)이다. 기제사를 주관하던 선조가 기제사를 지내기에 너무 나이가 들거나 기제사를 지내던 선조가 돌아가셨을 경우 등 선조들이 더 이상 기제사를 지내지 못하거나 후손들이 결혼을 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기제사를 행할 형편이 되면 후손들에게 기제사를 넘기는 것으로, 보통 육지부에서는 장자승계의 형태를 띠나 제주지역의 경우는 꼭 장자승계의 형태만을 띠지는 않는다.[11] 제주도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신들 또는 조상의 기제사를 나누어주는 것을 제사 분짓(분할)이라고 한다(이창기, 1995).

특히 제주지역의 기제사 승계는 제월전과 관련이 많아 제사를 승계할 후손에게 일정 정도의 경제적 재산이 같이 상속되는 것으로 기제사의 재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월전 상속이 한국의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제사 재생산 구조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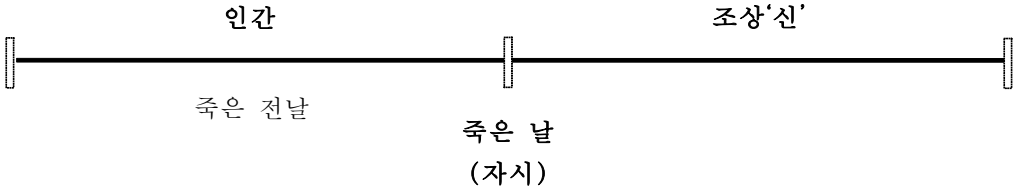
4) 기제사의 제법

기제사를 지내는 제법(祭法)은 제의 시간과 제의 절차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제시간의 범주는 제를 집행하는 시간은 '자시(子時)'를 기준으로 하여

11) 이창기(1995)는 기제사 분할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신흥리, 조천리, 제주시 삼양동, 오라동, 노형동,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신엄리, 상귀리, 상가리, 납읍리, 곽지리, 한림읍 대림리, 수원리, 한림리, 명월리, 옹포리, 한경면 고산리,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 서광리, 서귀포시 상예리 등이라고 보고했으나 이것이 지역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더 많은 고찰이 요구된다.

이후에 지내는 것이 전통적인 모습이다. 보통 기일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전날에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를 지내는 시간이 자시 이후라 결국은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다.[12] 〈도표 Ⅱ-4〉처럼 이것은 인간에서 조상신으로 바뀌어 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를 지내는 것으로 의례에 종교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표 Ⅱ-4〉 제를 집행하는 시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73년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기제사를 해가 진 뒤 21시 이전에 지내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13], 이것이 실패한 이유는 죽은 날 21시에 지냄으로써 인간이 조상'신'으로 환생하는 시점이 훨씬 지나 신이 저승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차린 음식을 먹겠냐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가가 무리하게 종교적 성격이 강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반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상'이 '신'으로 환생하는 시점에서 제의례를 지냄으로써 제의례에 참여하는 후손들과 참여자들은 '신' 앞에서의 암묵적 혈연의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간의 관계를 강하게 결집시키면서 사회적 동일 자원으로서 모양을 갖추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돌아가신 당일날 21시에 지내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어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의 절차이다. 전통적인 제의 절차는 영신(迎神)-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첨작(添酌)-삽시정

12) '자시(子時)'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13) 가정의례준칙 제4장 제례부분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사회부의 『가정의례해설』(1974:75-85)에 그 의미가 해설되어 있다.

저(揷匙)-합문(閤門)-개문(開門)-헌다(獻茶)-철시복반(徹匙復飯)-사신(邪神)-철상(撤床)-음복(飮福)인데 최근에 나타나는 제의 절차는 보편적으로 신위봉안(神位奉安)-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삽시(揷匙)-헌다(獻茶)-사신(邪神)-철상(撤床)-음복(飮福)인 것으로 나타난다.[14] 이것은 전통적인 제의 절차가 복잡하여 습득하기 어려워짐으로 최소한의 절차로 축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종교적인 부분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절차마다의 의미는 이미 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단 제의 절차가 제의 시간과 더불어 혈연들을 묶는 종교적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5) 기제사의 제수(祭需)·부조(扶助)

기제사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물적 변화만큼 확실히 드러나는 것도 없다. 변화된 사회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물적 형태에는 제수와 부조를 들 수 있다. 제수는 제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은 음식을 의미하여 전통적으로 메, 면, 편. 탕, 적. 채소, 청, 장, 식해, 포, 갱, 과, 송, 식, 과실, 제주, 경주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토종 식품류만 사용한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보통 메, 편, 적, 채소, 포, 갱, 과실, 제주, 경주 등이 들어가 육지부에 비해서는 간소한 형태를 유지한다.[15] 그러나 제수마련은 사회변화에 따라 식품가공 기술이 발달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이 기제사 제수의 변화에 가져온 점 중 최대의 변화는 준비기간의 축소에서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제수를 준비하기 위해 몇 달 혹은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마련하던 것이 이제는 식품가공의 발달로, 굳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더라도 1주일이나 3일 혹은 1일 전에 구입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가공산업과 유통산업의

14) http://kidnet.com/contest/1022/jealae.htm#k6 참조.
15) 자세한 것은 Ⅳ장을 참조.

발달로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조리가 편하도록 포장되면서 전통적인 제수에서는 볼 수 없는 인스턴트류의 식품과 타지역의 식품 및 수입식품들이 기제사상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16] 이는 산업사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상품)로 대처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종교성이 강한 기제사에 이 생산물이 사용됨으로써 산업사회가 정당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제수의 변화는 남녀간의 성역할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제수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들이 준비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제수마련의 몫은 여성의 몫으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산업발달이 가져온 여성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제수와 더불어 상대적인 것이 부조(扶助)이다. 보통 제수가 기제사 주관자들에 의해 마련되어지는 물적 요소라면 부조는 주관자를 제외한 기제사 참여자들이 주관자들에게 주는 상대적 물적 요인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이웃집 기제사에 떡을 찌어 가져가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부조의 한 형태로, 기제사에서 이것을 '제주(祭酒)와 제물(祭物)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술을 부조하는 경우는 제주(祭酒), 떡이나 쌀을 부조하는 경우는 제물(祭物)이라고 칭해왔다. 쌀이 흔해지기 전까지는 떡을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쌀이 들어오고 나서는 쌀을 제물로 부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혈연공동체의 동일거주 해체가 일어나면서 거리상의 이유와 편리함, 실속의 이유 등으로 기제사에도 현금부조 현상이 나타나고 제물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이웃들의 부조형태는 최근에 매우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시장상황에서의 관계변화가 기제사 참여의 구성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6) 가옥구조

가옥구조의 변화가 기제사 변화 요인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옥구조의 변화가 제사를 모시는 장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무속제의 형태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16) 제수는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 계획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 되고 주거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높아지면서 정부전략적 농촌주택의 재배치가 있어왔고(농촌진흥청, 1994: 1995: 1996), 신축가옥에 제의례 공간이 따로이 마련되고 있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17]

7) 금기사항

금기(禁忌, *Taboo*)는 어떤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내용물로 전화(轉化)해서 그 심리적 특성상 대개 강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일체의 의식적인 동기부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18] 그러나 사실 타부는 종교적 혹은 도덕적 금기와는 다르다. 타부가 자기 기준에 따라 스스로 가한 금기라면 도덕적 금기는 명문화된 금기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굳이 금기와 타부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기제사에 금기에 대한 사항들이 이 둘을 포함하고 있어 몇몇 금기들을 어기면 조상신들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강박관념과 윗사람으로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도덕적 주의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범주 안에서 보고자 한다(Freud, S, 1997: 205-430).

기제사때 나타나고 있는 금기사항들은 해당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그 지역의 자연적, 종교적 특성을 제의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도 기제사때 많은 금기사항들이 발견되며 제의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금기사항들을 지켜나간다. 최근 들어서는 필요에 따라 많은 금기사항들이 축소되거나 소멸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금기사항은 버리고 최소한의 것만 남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7가지 요소들을 기반으로 〈도표 Ⅱ-5〉와 같이 1에서 4까지는 기제사의 인적 요소의 측면으로, 5에서 8까지는 물적 요소의 측면으로 나눠볼 수

17) 제의례 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정순우의 연구(1998)가 있다.
18) 타부의 개념에 대해 빌헤름 분트는 제의적 관념과 관련이 있는 일정한 대상 혹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외포(畏怖)가 표현되는 일체의 관습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Freud, S(1997)참조.

있다. 연구자는 산업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자원동원이 유리하도록 의례 또한 변화하고 있는 점에 착안, 회천마을을 변하게 하고 있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등 2개의 요인이 기제사와 혈연공동체 및 마을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혈연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변화는 기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혈연 및 지연자원의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도표 Ⅱ-6〉같은 구체적 도식을 갖고서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표 Ⅱ-5〉 기제사 구성의 세부적 요인들

1.대상의 변화

2.참여자의 변화----------혈연참여의 변화-헌관·집사의 형태변화
이웃참여의 변화

3.제사승계의 변화----------제월전의 변화

4.논의되는 주제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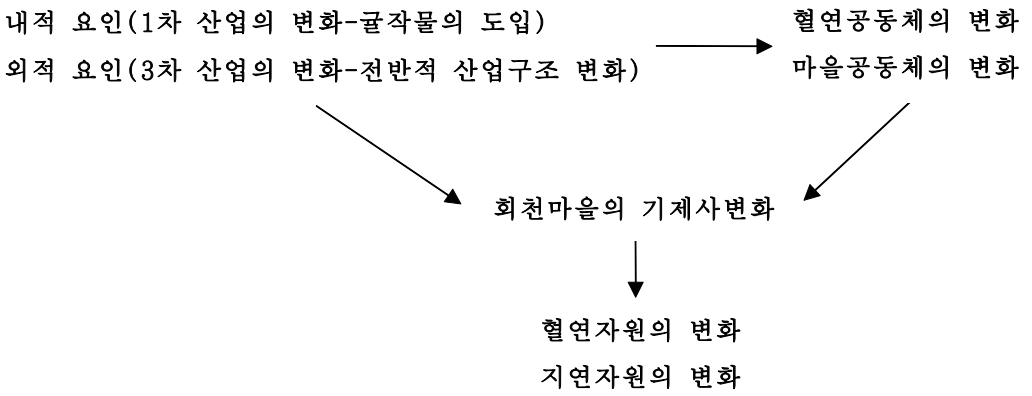
5.제법의 변화----------제시간의 변화
제의절차 변화

6.제수·부조의 변화----------종류와 내용의 변화
남녀성역할의 변화

7.가옥구조의 변화----------제사방의 변화
무속제의 변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표 Ⅱ-6〉 구체적 도식



3. 연구방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조사지 선정에 따른 마을조사에 나섰으며, 제주농촌마을의 변동과 기제사의 변화의 측면을 관찰하기 용이한 회천마을을 선정하여 면접 및 관찰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회천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귤작물 보편화 이후 마을 내의 변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혈연과 지연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마을 내의 내부적 요인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19] 둘째 행정적으로 제주시에 속해 있지만 중산간에 위치해 어느 정도 전통적인 제주농촌마을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제주시의 산업구조의 간접적 영향으로 혈연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성격이 변하고 있어 외부적 요인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 셋째는 하나의 농촌마을 단위가 기제사의 변화에 대한 조사가능한 대상자의 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시간적·공간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19) 귤작물의 농업은 분명 외부의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보편화·대단위 되어 가고 있어 귤작물을 둘러싼 외부의 시장메커니즘을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마을 내에서 귤작물의 보편화가 직접 일어나고 있는 행위란 점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보고자 했다.

조사는 1차적으로 해당마을의 동사무소에서 통계자료를 습득하고, 회천마을의 통장과 노인회장, 작목반장, 마을원로 등을 만나 마을에 대한 역사적, 인문학적 기초자료 및 통적부를 획득한 다음, 그 자료를 기반으로 면접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20] 그리고 이전의 몇 차례의 기제사에 대한 관찰조사의 경험을 토대로 면접조사지를 만들어 면접조사 대상자와 직접 개별 면담을 가졌다. 면접조사지는 구조화된 질문(structured question)과 비구조화된 질문(unstructured question)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구조화된 질문은 필자가 의도를 갖고서 묻는 질문과 범주화할 수 있는 대답 등에 대해서 사용하고 대체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의 주안점은 귤작물의 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사대상자 가구의 경제활동의 변화 및 혈연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관계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기제사 변화 등에 두었다. 특히 면접조사시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단어를 풀어 다시 되묻는 방법을 취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면접자: 제사 때 삼헌관은 누가 섭니까?
답변자: 삼헌관이 뭐냐?
면접자: 제 지낼 때 집사 맡고 젯상 앞에 엎드려 제보는 제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제관들은 누가 누가 선다.
면접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은 누가 섭니까?
답변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뭐냐?
면접자: 제관들을 호칭할 때 왼쪽에서부터 초헌관, 가운데를 아헌관, 끝에를 종헌관이라고 합니다.
답변자: 맨 왼쪽은 누게. 그 다음은 누게. 마지막은 누게. 이렇게 서주.

면접대상자 중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예: 삼헌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조율시이 등)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제사에 대해 문헌지식 습득이 이뤄지지 않고 경험적으로 기제사에 대한 행위가 습득되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면접조사 기간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소요되었으며, 그 후 마을의 모임이나 기제사가 있을 시 몇 차례 더 방문하였으며, 통장들에게는 계속적인

20)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방문을 하였다, 그것은 마을의 상황 중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참여관찰에 따른 방문이기도 했다.

사진자료는 조사기간 중에 기제사가 있는 집을 택하여 촬영하였으며, 그 이전에 본 연구자가 갖고 있던 3-4백 여장의 기제사 사진들을 마을의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해당이 있는 사진들을 고르도록 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조사대상 개관

1. 동회천 마을

1) 자연·지리적 개관

동회천 마을은 제주시로부터 동쪽으로 12.3km 가량 떨어져 있는 중산간에 위치한 봉개동의 6통에 해당되는 법정동이다. 시내버스가 1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되고 있을 정도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마을의 토양은 주로 용암류 대지에 분포하는 화산재를 모재로 한 토양으로 미사질 양토로 토양배수가 잘 되고 토심도 깊은 편이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했다. 표토는 농암회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식 양토이며, 깊은 땅속 심토는 암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 양토였다. 이 토양의 자연비옥도는 보통이며, 유기물 함량이 매우 많고 토양반응이 매우 강한 산성이라 마을 주민의 85%가 농사를 지으며 보리, 콩, 유채, 무우, 감자 등의 밭작물 농사와 과수원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국어교육학회, 1994: 210).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근, 수박, 배추 등의 특용작물과 약초재배 및 축산업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매우 많이 감소하여 대부분이 귤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조사 당시 작목반은 감귤 영농작목반 1개가 있었으며 3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었다.

주요 현안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마을인구의 유출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권 행사의 문제였다. 이 두 개의 문제점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회천마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점과 관련이 깊었다. 마을인구의 유출은 마을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농사확장이 안되고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많이 빠져나가면서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농촌마을의 인구유출은 회천마을 외에도 제주농촌마을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문제이나 회천마을의 경우 행정상 제주시 근교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지구라는

점 때문에 마을인구의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마을 인구의 유출은 1996년도에 이르러서는 삼양초등학교 회천분교가 폐교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으며 현재 마을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삼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21]

둘째, 재산권 행사의 문제는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제주시 본 동들과 별 차이 없던 땅값이 그린벨트로 묶인 후부터 땅값의 하락 및 동결을 가져와 본 동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세상승에 훨씬 미치지 못해 매매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회천마을내 신축가옥허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2) 역사·인문학적 개관

역사적으로 동회천은 '새미'라고 하는 자연촌을 이루고 있었으며, 1913년 제주도 제주면으로 승격할 당시 통합되었다. 4·3 당시 다른 중산간 지역과 같이 역시 초토화되었던 지역으로 5년여 동안의 소개생활에서 돌아와 3년간의 노력 끝에 복구하고 자체자금으로 향사(鄕舍)를 건립하여 농로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1970년에는 이 마을 출신이면서 일본에서 성공한 재일교포 김평진씨와 애향회원들의 도움으로 상수도, 전기시설이 마련되었고 1972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도로포장, 농로확장 등을 실시하였다. 1984년 최초의 마을회관을 지었다가 1995년 12월에 마을사람들의 공동출자와 기부금으로 신마을회관을 건설하였다.

마을의 주요 성씨는 평강 채씨, 경주 김씨, 연산 김씨, 천안 전씨, 양천 허씨와 수원 백씨 등이며, 이들 성씨 내에는 친척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마을 내의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의 각종 조직의 최고 직책에도 대부분 이 성씨의 사람들이 대부분 맡고 있었다.[22] 이는 마을 유지들간의 유지합의형(신행철, 1989)의 권력분포

21) 실제로 주소지만 동회천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 및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수만도 15가구나 되었다.
22) 조사당시 동회천 마을 통장은 채씨 집안의 사람이, 작목반 반장은 김씨 집안의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3]

1998년 9월 현재의 인구수는 83세대 321명이며 최근 1년간 육지에서 들어온 가구수는 3-4가구였다.[24] 해방 이전에는 90여 세대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4·3 이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5]

마을의 신앙은 '세밋당'과 화천사 뒤뜰의 '5석불 신앙'이 남아 있으며,[26] 무속신앙과 불교신앙이 강하여 다른 기독교 계열의 공인종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다.[27] 상례는 7-8년전 전0범씨의 탈상이 마지막 대상(大喪)이었고 지금은 마을주민 대부분이 소상(小喪)까지 지내고 있으며 야제(野祭)는 하지 않고 있었다.

행정적으로는 제주시내에 속해 있지만 제주시 중심지의 본 동들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와 마을내 주요 산업이 농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농촌마을의 성격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지금도 백중날에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일을 않고 당에 모여 당제를 지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람이, 노인회장은 김씨 집안의 사람이 맡고 있었으며, 허씨 집안과 전씨 집안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마을일에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23) 신행철은 제주농촌마을의 권력구조 유형을 지도자중심형, 유지합의형, 유지파벌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지도자 중심형은 일원적 권력구조형으로 유지파벌형은 다원적 권력구조 형태로 보고 있으며 유지합의형은 그 척도상 중간 형태이며, 리더쉽 파벌의 하나라는 점에서 일원형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4) 봉개동사무소 제공

25) 國語敎育學會(1994) 자료와 봉개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동회천마을과 서회천 마을을 모두 합쳐 인구수의 변화를 보면 1955년 615명이 1987년에는 758명, 1993년에는 628명, 1998년에는 610명으로 87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6) 5석불 신앙은 회천이 물이 좋아 전염병이 없었는데 갑인년(1912년) 호열자(말라리아 병의 일종)가 생기자 석불을 만들어 모시게 된 데서 유래한 신앙이다. 석불제는 매년 음력 정월달에 유교식의 포제로서 지내고 있었는데, 부처상에 불교식이 아닌 유교식으로 기제사를 지낸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화천사에서는 가을에 다시 석불에 대한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

27) 실제로 조사당시 기독교인은 동회천 마을 주민 전체중 2가구 총 5명이었으며, 봉개동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 서회천 마을

1) 자연·지리적 개관

서회천 마을은 동회천 마을로부터 대략 2km 정도 떨어져 있고, 동회천 마을과 같이 봉개동의 5통에 해당하는 법정동이다. 토양의 질이 동회천 마을과 같아 주요 산업이 농업이며, 90% 이상이 감귤농사를 하고 있었다. 감귤농사를 많이 하는 영향으로 일반 개별 귤작목반 1개와 영농회 작목반 1개 해서 총 2개의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었고 영농회 작목반은 삼양농협소속이었다. 과수원을 많이 하게 되면서 특용작물이었던 수박과 배추농사가 많이 사라졌으며, 축산업도 많이 사라져, 현재 2가구만이 축산업을 하고 있었다. 마을의 주요 현안문제는 동회천 마을과 같이 마을인구의 유출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곳의 초등학생들도 동회천 마을의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폐교 이후에 삼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일제 말기에는 진흥서당(振興書堂)이 세워질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마을이었다.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가 많고 어린 자녀들이 많지 않아 폐교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었다. 이외에 마을회관의 보수문제가 현재의 큰 사안이었다. 마을회관이 완성될 때까지 노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며, 마을의 공식적인 모임도 개별 가구의 집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역사·인문학적 개관

자연·지리적 여건은 동회천 마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역사·인문학적 여건은 동회천 마을과 차이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서회천은 '가는새'라고 하는 자연촌이었으며, 동회천 마을과 같이 1913년에 제주면으로 통합되었다. 이 마을 역시 4·3 이전에는 130여 가구가 거주했으나 조사당시 88가구만이 거주하고 있었다.[28] 1965년도에 이 마을 출신이면서 서울서 성공한 건홍전

기사장 고인호씨와 이 마을 출신 고창종, 고숙여씨의 도움으로 전기가 가설되었으며, 도로포장과 마을회관 건립에는 고창종씨와 이 마을에 거주도 하지 않고 출신도 아니면서 서회천 마을에 농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주 왕래하던 장홍윤씨가 상당의 기부금을 내었다.

주요 성씨는 제주 고씨, 남양 홍씨, 제주 양씨, 남평 문씨가 있으나 같은 성씨 내 친척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유대관계는 미약한 편이었다. 마을 전체가구의 3분의 1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20년 정도된 가구들이었으며, 이곳에 와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마을 문제의 논의나 마을 조직의 최고 직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유지파벌형(신행철, 1989)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수가 대략 50% 정도로 동회천 마을에 비해 개별성을 지니고 있어 마을공동체의 성격은 동회천 마을에 비해 헐거운 편이었다. 결사체는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본 마을 외의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없었다.[29)]

마을의 신앙은 '남선밧 할망당'과 '하르방당'이 주축이며, 이곳 역시 동회천 마을과 같이 다른 공인종교가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기독교인은 2가구로 마을 외의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리사제와 신과세제, 백중제를 지내고 있었으며, 리사제를 지내기 1시간 전쯤에 마을책임자. 부인회장, 리사제의 삼헌관이 남선밧당에 가서 당제를 먼저 지내고 나서 리사제를 지냈다. 백중날 백중제는 남선밧당에 모여 지냈다.

상례에서 대상은 5-6년전부터 없어졌으며, 최근에는 소상도 축을 고해 야제를 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어 동회천 마을에 비해 가정의례준칙이 많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는 마을의 개별적 성격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서회천 마을과 동회천 마을을 비교하면 동회천 마을에는 서회천 마을보다 대성씨 집단이 여전히 잔류하여 마을의 공동문제와 의례에 주요 세력을 이루어 관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나 환금작물인 귤농사의 대량화 및 그린벨트 지구라는 내부적 요인과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급변이라는 외부적 변화요인에 의해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28) 이 중에서도 주소지만 서회천인 경우가 16가구나 되었다. 이유는 과수원이나 농장은 이곳에 있고 거주는 제주시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9)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결사체는 라이온스클럽이나, JC 등을 의미한다.

면서 마을공동체의 해체가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서회천의 경우는 대성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진하며 유입인구 중에 귤농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마을 일에 대부분 관여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 마을로 들어오는 유입인구들 중 농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주시의 비싼 거주비용을 줄이기 위해 들어오는 가구도 많아 가구마다 개별성을 드러내면서 동회천 마을보다 빠른 농촌 마을공동체의 해체를 보이고 있었다.

3. 조사대상자 선정

회천마을의 성격변화 이후 기제사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는가를 두고서 필자는 면접가능한 모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회천마을 내의 조사가능한 가구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먼저 회천마을의 총 가구수는 98년 9월 봉개동사무소 제공시 171가구였다. 그러나 97년 통적부상의 가구수는 동회천 마을이 63가구, 서회천 마을이 79가구로 총 142가구였다.[30] 여기에 1차 조사시 나타난 신규가구 16가구를 포함하여 총 158가구를 2차 조사시의 대상자로 정하였다. 2차 조사의 대상자로 정해진 158가구 중 마을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70가구를 추려내고 나머지 88가구 중에서 거주만 달리하고 원래 한 집안의 가족이면서 가구가 중복되고 있는 17가구를 제외하니 최종적으로 조사가능한 가구수가 71가구가 되었다. 연구자는 이 71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8월 중순에서 9월 하순까지 면접조사와 관찰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가구주를 선택한 이유는 가구주들의 나이가 대체로 기제사를 주관하는 적정 나이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주관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30) 통적부상의 가구수와 실제 가구수와의 차이가 난 것은 조사당시 봉개동사무소가 이사 및 개인정보누출 등의 이유로 통원과 반원을 기록한 자료제시를 거부함에 따라 통장들이 갖고 있는 통적부를 활용하여 가구수를 뽑았는데, 통장들이 갖고 있는 통적부가 9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 98년도의 실제 가구수와 차이가 났다.

조사결과 기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가구는 동회천 마을이 24가구, 서회천 마을이 30가구였다. 그리고 기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있지 않지만 친척의 기제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총 9가구(동회천 마을 5가구, 서회천 마을 4가구), 그리고 전혀 없는 가구가 총 8가구(동회천 마을 4가구, 서회천 마을 4가구)였다.

따라서 필자는 기제사의 변화 형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54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친척의 기제사에 참여하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는 부수적인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이 54가구는 조사가능한 가구수의 76.05%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져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자는 기제사를 주관하는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조사기간 중에 가구주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가구주의 부인들과 면접조사를 하였다. 〈표 Ⅲ-1〉은 조사대상자 산출을 도표화 한 것이며 〈표 Ⅲ-2〉는 조사대상 가구수 중에서 조사가능했던 가구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Ⅲ-1〉 조사대상자 산출 내용

내 용	동 회 천	서 회 천
98년 가구수(봉개동사무소제공)	83가구	88가구
97년 통적부상의 가구수	63가구	79가구
조사시 나타난 신규가구수	15가구	1가구
총 조사대상 가구수	78가구	80가구
가구가 중복되고 있는 경우	12가구	5가구
실제 확정 조사대상 가구수	66가구	75가구
조사 가능한 가구수(총 71가구)	33가구	38가구
	주관하는 경우 24가구	주관하는 경우 30가구
	참여만하는 경우 5가구	참여만하는 경우 4가구
	전혀없는 경우 4가구	전혀없는 경우 4가구
조사 불가능한 가구수(총 70가구)	33가구	37가구
	조사불가 내역	
	본동외 거주 11가구	본동외 가주 11가구
	이사 및 주소지만 15가구	이사 및 주소지만 16가구
	거부 3가구	거부 0가구
	환자 1가구	환자 2가구
		사망 5가구
	만나지 못한 경우 3가구	만나지 못한 경우 3가구

〈표 Ⅲ-2〉 조사 가능한 가구수의 실제 확정 조사대상 가구수에 대한 비율

내 용		동 회 천	서 회 천
직접 주관하는 경우	실제 확정 조사대상 가구수 66 및 75 가구수에 대한 비율	24가구(50.00%)	30가구(50.66%)
	조사 가능한 가구수 33 및 38 가구수에 대한 비율	24가구(72.72%)	30가구(78.94%)
참여만 하는 경우	실제 확정 조사대상 가구수 66 및 75 가구수에 대한 비율	5가구 (7.57%)	4가구 (5.33%)
	조사 가능한 가구수 33 및 38 가구수에 대한비율	5가구(15.15%)	4 가구(10.52%)
전혀 없는 경우	실제 확정 조사대상 가구수 66 및 75 가구수에 대한 비율	4가구 (6.06%)	4가구 (5.33%)
	조사 가능한 가구수 33 및 38 가구수에 대한 비율	4가구(12.12%)	4가구(10.52%)
조사 불가능 이사 및 주소지만 회천인 경우	실제 확정 조사대상 가구수 66 및 75 가구수에 대한 비율	15가구(22.72%)	16가구(21.33%)
	조사 불가능한 가구수 33 및 37 가구수에 대한 비율	15가구(45.45%)	16가구(43.2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기제사를 지내고 있는 54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기제사의 변화에 개인적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들로서 직업 및 경제 특성, 연령 특성, 교육수준, 종교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조사대상자의 경제 특성이었다. 그것은 산업사회가 경제적 생산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고 제주지역사회가 산업을 근간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연령 특성은 권력의 획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전통사회에서 높은 연령은 권력획득의 주요 변수가 되어왔다. 기제사 변화와 관련하여 연령의 변수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을지 모르나 기제사 의례시 논의되는 주제들에 있어서 집안내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절대

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연령 요인은 유의미한 변수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의미해지기 위해서는 연령별 대답의 차이, 내면화의 차이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함으로 필드를 넓히거나 필드가 협소할 경우 마을 주민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서 연령 특성은 다소 무의미한 변수가 되고 있다.

교육이라는 변수는 농촌마을 인구이동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왔으며, 의례 변화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회천마을내 조사대상자의 개별 교육 수준은 기제사에 변화를 줄만큼 차별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개별 변수로서 무의미했으며 오히려 전반적인 교육열의 차원이 인구이동의 변화를 주고 있었고 그것이 기제사의 인적 요인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였다.

종교적 특성도 종교가 각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권력을 획득함에 개인의 종교적 배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가 하면 전통의례와 관련하여 종교는 때때로 갈등을 엮어내기도 하고 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변동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인 회천마을의 경우 무속적 신앙이 강하고 종교분포가 획일적인 측면이 많아 이것이 기제사의 변화에 주는 영향은 미비하였으며 오히려 무속제와 당제를 살펴보는데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제사 변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변수로 경제 특성을 주요 변수로 보고 나머지 연령, 종교, 교육의 차원은 개인적 변수가 아닌 포괄적 변수로서 보고자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직업 및 경제 특성

대체로 사회 경제적 특성을 파악함에 어떠한 요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견해를 찾기가 어렵다. 그것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제적 요인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더불어 연구자들은 연구주제에 따라 그 많은 요인 중에 어떠한 요인들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본 연구는 경제적 특성을 파악함에 조사대상자들의 경제활

동 형태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주안점을 두고서 살펴보려 하였다.

먼저 경제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표 Ⅲ-3〉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 54가구 중 88.88%인 48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영농업과 임대농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 농업가구 48가구 중에 1가구만이 임대농업을 하고 있었으며, 47가구가 자영농업이었다. 목축업은 귤농사가 보편화되면서 많이 사라져 지금은 54가구 중 동회천 마을 백0옥씨(68세)댁 1가구 만이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운수업이나 상업의 직업을 가진 가구주들은 서회천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지 각각 2년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비싼 도시의 집세를 절약하기 위해 제주시 근교의 이 마을로 이사를 왔으며, 직장은 제주시내에 있었다. 이외에 전기공인 가구주가 1명 있었는데, 동회천 마을에 살기 시작한지는 20년이 넘었으며, 직장은 제주시내에 있었다.

〈표 Ⅲ-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단위: 가구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제활동	농업	목축업	운수업	상업	고용직	무직	계
동회천	20	1	0	0	1(전기공)	2	24
서회천	28	0	1	1	0	0	30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회천마을이 농촌마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고정자산인 토지를 이용하여 얻고 있는 연수입을 조사하였다.[31] 최종 조사대상 가구 54가구를 중심으로 연수입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를 보면 연수입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 15가구로 이 범위에 속하는 가구가 제일 많고 4천만원 이상의 가구수도 11가구로 총 54가구의 20.37%를 상회하고 있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경제적 능력이

31) 농촌마을의 경우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유한 토지만으로 경제적 부를 측정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시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판매로 얻는 수입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도시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의 경우와 3억 이상의 연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각각 1가구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농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는 가구들이었다.

〈표 Ⅲ-4〉 조사대상 가구의 연수입

(단위: 천만원)

연수입	1이하	1이상-2미만	2이상-3미만	3이상-4미만	4이상-5미만	5이상-6미만	6이상-7미만	7이상-8미만	기타	계
동회천	4	2	7	5	3	2	0	1	0	24
서회천	2	7	6	10	2	1	1	0	1(3억이상)	30

조사대상 가구의 연수입을 살펴보면 회천마을의 연수입이 도시 근로자의 연수입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회천마을 내에 귤작물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조사대상자들 사이에도 대단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연령 특성

제사를 주관하는 가구주들의 연령분포는 대체로 50세에서 65세까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범위에 속하는 가구주들의 수가 총 54가구주 중에 34가구주로 62.96%를 차지했다. 그 외에 조사가능한 가구수 총 71가구 중에서 20대의 가구주는 2가구주였으며, 기제사를 행하고 있는 54가구의 연령분포는 〈표 Ⅲ-5〉와 같이 30대에서 80대까지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은 기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회천마을의 전통적 모습이라면 70세 이상에서 4가구주가 기제사를 양위하지 않고 모시고 있는 점은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진 모습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며 이는 차후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32]

32) 회천마을 조사 당시 사람이 출생해서 70세 이상이 되면 입신(入神)의 경지로

〈표 Ⅲ-5〉 조사대상자의 연령

(단위: 가구주)

연령	30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61 -65	66 -70	70 -75	76 -80	80 이상	계
동회천	0	2	1	1	3	8	5	2	2	0	0	24
서회천	1	1	2	2	7	7	4	4	0	1	1	30

3) 교육 수준

교육의 대중화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육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은 사회이동의 결정적 요인으로 농촌주민들의 도시로의 이동에 크게 작용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신행철, 1989). 회천마을의 경우도 40대 이전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은 〈표 Ⅲ-6〉에서 보듯이 대체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그것은 기제사 주관자들의 연령분포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이하의 가구주들이 4·3과 6·25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회천마을 역시 4·3때 피해를 많이 본 중산간 마을 중 하나라 생계유지의 생활마저 힘들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54가구주 중에 26명으로 48.14%나 되어 절반 가량이 초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보였다. 특별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을 살펴보면 2명은 30대, 1명은 70대로, 30대의 경우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로 이미 환금작물이 들어와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다음이었고, 70대의 가구주가 대학을 다녔던 경우는 4·3 이전에 이미 대학에 들어간 상황으로, 부모들이 전통적인 밭작물 농사와 목축업으로 부를 갖고 있었던 경우였다.

따라서 4·3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에 얼마나

여겨 기제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제사를 주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에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아 기제사 변화를 살펴보는데는 유의미한 변수로 보기 힘들었다.

〈표 Ⅲ-6〉 조사대상자의 학력

(단위: 가구주)

학력	무학	한학	국중퇴	국졸	중중퇴	중졸	고중퇴	고졸	대학이상	대답하지않음	계
동회천	2	1	0	11	0	2	0	5	1	2	24
서회천	5	0	1	6	0	6	0	1	2	9	30

4) 종교 특성

조사대상지인 회천마을은 전통적으로 무속적 신앙심이 강하여, 다른 공인 종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기독교 계열의 종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당시 마을 전체가구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가구는 4가구로 동회천 마을 2가구, 서회천 마을 2가구였다. 이들 4가구 중 3가구는 외부에서 이사를 와서 정착한 가구로 2가구는 들어온 지 각각 10년과 13년이 되었고 1가구는 들어온 지 1년 정도였다. 이들은 모두 마을 외의 교회에 나가고 있었고 기제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 하면서도 강한 부정적 행위를 보인다던가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것은 시대가 흘러 사회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개인의 사생활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기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종교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6〉과 같이 나왔다. 대체로 회천마을에 거주한지 50년 이상된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불교 아니면 유교,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없는 것으로 종교분포가 매우 획일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Ⅲ-7〉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23가구주 중에 마을에 거주한지 20년 이상된 가구주 상당수가 마을의 당제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비

종교적 혹은 무(無)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단지 공인 종교에 다니고 있지 않을 뿐 어떤 면에서는 무속신앙을 믿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33] 이와는 달리 거주한 지 10년 미만의 5가구주들은 마을의 당제에는 비교적 관심이 없는 층이나 집안의 기제사에는 무속제를 행하고 있어 마을 신앙에는 얽매여 있지 않았지만 무속신앙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종교 특성이 기제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갈등을 빚을만한 종교적 특성이 가구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제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기독교-유불교의 형태를 회천마을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표 Ⅲ-7〉 조사대상자의 종교

(단위: 가구주)

종 교	불교	유교	종교없음	계
동회천	14	2	8	24
서회천	14	1	15	3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Ⅲ-8〉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가구주들과 마을거주 연수의 관계

(단위: 가구주)

거주 년수	5년미만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40년미만	40년이상 -50년미만	50년이상 -60년미만	60년 이상	출생 때부터	계
동회천	0	0	1	1	1	2	0	3	8
서회천	2	3	1	2	0	1	1	5	15

33) 〈표 Ⅲ-8〉를 참조.

Ⅳ. 혈연공동체의 변화와 기제사

이 장에서부터 전통적인 제주지역 기제사를 규정하던 혈연공동체와 마을공동체가 산업사회라는 사회변화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것은 현재의 기제사에 어떻게 투영되어 현재의 사회질서를 위한 어떠한 자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려 했다. 이 장에서는 먼저 혈연공동체의 변화가 기제사를 통하여 오늘날 어떠한 자원으로 형태지워지고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혈연공동체의 변화

한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그 규명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회의 성격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혈연공동체의 성격 변화를 규명한다는 것은 어떠한 요소를 갖고서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지 제시할 것을 요망한다. 필자는 인간생활이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 내에서 혈연공동체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피려 했다. 특히 제주사회의 변화가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극치를 이루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점이 혈연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다.

전통적으로 제주지역에서 혈연공동체는 직계 가족만을 위시한 가족공동체와 부계친, 모계친, 처계친 등을 근간으로 하는 친척공동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혈연공동체의 성격은 거주와 관련이 많은데, 가족공동체의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직계 가족의 장남, 차남, 삼남 등이 따로 분가하여 살면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대외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의 가족으로 활동하는 특성을 보인다.[34]

34) 최재석(1979)은 제주도의 가족구조는 민가의 가실구조(家室構造)를 이해함으로써 더욱 선명히 파악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주의 전통가옥 구조는 한 울타리 안에 한 채 혹은 여러 채의 건물과 생활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건물의 수에 따라 한

회천마을의 전통적인 혈연공동체의 성격도 제주지역의 일반적인 성격과 비슷하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하나였던 이 마을도 직계 가족이 따로 거주하며 경제활동 단위를 따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모계친, 부계친, 처계친의 방대한 친족구조가 한 마을에 살면서 노동력을 공유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을 내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배추, 무, 수박, 당근, 감자 등의 환금작물이 도입되어 시장경제 하에 놓이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마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회천마을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은 귤작물의 도입이었다. 귤작물의 도입은 회천마을 내의 주민들에게 시장경제 하에서 부의 편차를 갖도록 하였으며 마을 내에서 부농가구와 영농가구의 분화를 유발하기 시작했다. 이 중 부를 축적한 부농들은 그린벨트지구 내에서 신축가옥을 지을 수 없는 점에 한계를 느껴 가족들과 거주지를 제주시로 옮기는가 하면 가구주 내외만 회천마을에 거주하고 자식들은 제주시에서 거주토록 하고 있었다.[35] 더욱이 1980년대 이후 제주시의 3차 산업의 발달은 마을 밖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도 제주시나 도외에서 취직을 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제 마을 내혼의 풍습은 더 이상 유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대략 20년 사이의 변화는 마을 안의 처계친, 모계친 등 친척공동체의 마을내 동일거주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도록 만들었다. 전통적인 혈연공동체의 경제활동과 거주형태에 변화가 나타났다. 농업이 근간이었던 농업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계활동이 다른 산업에서도 가능해짐으로서 동일 거주지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36] 이전의 혈연공동체가 마을단위 내에서 대체로 그 관계가 일상생활에서의 직접적인 대면관계였음에 비해 사회변화는 혈연공동체의 거주지 해체를 가져오면서 간접적인 대면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특별히 혈연공동체의 공식적인 의례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도록

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네거리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제들과 부모가 한 울타리 안에 따로 기거하는 것을 가옥구조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35) Ⅲ장의 〈표 Ⅲ-1〉를 참조.

36) 혈연공동체의 해체는 가족 규모의 축소라기 보다는 동일 거주지의 이탈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만들었다.

이렇게 회천마을 내의 귤작물의 도입과 제주시의 3차 산업의 발달은 회천마을 혈연공동체의 관계를 직접 대면관계에서 간접 대면관계로 변화시켰으며, 혈연간의 직접 대면관계는 의례행사시만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 점에서 특히 친척의 단위까지 참석하여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갖고 혈연의 동일가치를 주기적으로 형성시켜주는 의례는 기제사뿐이라는 점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이다.[37] 더욱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의 발달은 이러한 간접 대면관계를 더욱 옹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화는 모든 의사소통 통로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뤄진 것이며 산업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도 다양하다. 대다수의 동일 거주지로부터 이탈한 개별 가족 및 친척들은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인 대면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혈연공동체에 특별한 의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는 혈연공동체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정보화는 그런 변화들을 가능하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혈연공동체의 성격변화는 혈연관계의 주요한 의례들의 변화를 불러왔고 그 의례들을 통해 혈연자원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인적 요소의 변화와 기제사

기제사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의 하위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요소에는 기제사의 '대상'과 기제사의 '참여자' 및 기제사의 참여자들이 기제사에 모여 의논하는 각각의 '주제' 그리고 '제사승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물적 요소에는 기제사 주관자가 마련하는 '제수'와 기제사 참여자들이 마련하는 '부조', 또한 기제사를 모시는 '장소'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혈연공동체의 성격변화가 기제사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요소와

37) 혈연공동체의 직접 대면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의례는 혼인의례나, 상의례, 생일 등이 있으나 주기적으로 직접 대면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의례는 기제사뿐이라는 점에서 위의 의례들과 다르다.

물적 요소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기제사는 어떻게 변화하여 혈연자원을 생산하고 있는지 보고자 했다.

1) 기제사 대상의 변화

회천마을의 기제사 대상은 〈표 Ⅳ-1〉에서 보듯이 대부분 증조부모까지가 한계선이었다. 고조부모까지의 기제사를 모시는 경우는 총 54가구 중 6가구 밖에는 되지 않았으며[38] 고조부모의 기제사를 묘제(墓祭)(혹은 時祭)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39] 고조부모의 기제사를 묘제로 모시기 시작한 때는 집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7-8년 전부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대봉사가 3대봉사로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4대봉사가 회천마을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1〉 기제사의 대상[40]

(단위: 가구)

38) 기제사 분할로 인해 고조부모를 다른 지역의 다른 형제들이 모시는 경우는 없었다.
39) 4대조 이상의 조상을 한날 한꺼번에 모시는 것을 묘제 혹은 시제라고 한다.
40) 조부의 형제들을 모시는 기제사가 동회천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4·3당시에 조부의 형제들이 젊은 나이에 모두 죽어, 후손이 없어서 살아남은 형제의 자손들이 조부와 같은 격으로 모시는 기제사의 사례이다. 계부의 경우는 동회천마을이 1가구 있었으며, 숙부의 경우는 총 3가구로 양자를 가서 모시는 경우가 1건이고 양자를 갈 후손이 없어 그냥 부친의 기제사와 같은 격으로 모시는 경우가 2건이었다. 이때에 양자를 갈 후손이 없다는 것은 독자이거나 형제들이 사망하여 남은 후손이 없는 경우였다. 특히 외가의 기제사를 지낼 때에는 '까마귀 모른 식게'라 하여 약식으로 지내던 것과는 달리 외조부모의 기제사를 정식 기제사로써, 모친이 모시던 것을 외손들이 모시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기제사를 모시는 대상이 직계혈족만 모시는 단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동성과 융통성이 상당히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대상	모	부	조모	조부	증조모	증조부	고조모	고조부	기 타						
									조부의 형제들	계부	숙부	계모	형님	형수	외조부모
동회천	13	12	7	12	3	6	1	1	2	1	1	1	1	1	2
서회천	15	16	9	15	5	12	5	5	남편	계부	숙부	처	형님	아들	
									4	0	2	1	3	1	

고조부모의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로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증조부까지 밖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조부모의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41] 남계 박세채는 주자의 말을 빌어 '고조의 상에 복을 입음에 따라 기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 하여, 고조부모와의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4대봉사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安浩龍, 1997). 실상 회천마을 조사 당시에도 이 점이 고조의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한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접 대면 조상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동회천 마을의 김0령(78세)씨 사례의 경우, 자신은 고조부모의 기제사를

41) 1980년대 이전의 평균 적정결혼 연령이 남자의 경우 25세, 여자의 경우 20세에서 현재 남자의 경우 28세, 여자의 경우 25세라면 〈표 Ⅳ-2〉와 같이 80년대 이전에는 조상을 기억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고조부모까지와의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에 비해 많은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반면 80년대 이후 나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성립하는 조상은 증조부모까지의 경우로 줄어들 것이며 이 현상은 산업의 분화와 발달에 따라 결혼주기가 점점 느려질 수록 직접 대면관계의 조상을 조부모의 경계까지 오도록 하고 있다.

〈표 Ⅳ-2〉 직접 대면 가능한 조상

년대	1980년대 이전	1980년대 이후
직접대면가능한 조상과 후손의 관계	나 15세 부모 35세 조부모 55세 증조부모 75세 **고조부모 95세**	나 15세 부모 40세 조부모 65세 **증조부모 90세** 고조부모 115세

*굵게 표시 한 것은 대면가능한 한계 나이다.

지냈지만, 아들 김0원(40세)씨에게는 3대봉사만을 지내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제사 주관자 김0원씨가 죽은 4대조 조상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기 때문으로 밝혔다. 또 다른 한 사례는 동회천 마을의 허0언(74세)씨 집안으로 기제사를 양위 받은 아들 허0호(43세)씨는 4대조 조상이 되는 고조부모의 기제사를 부친 허0언씨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 경우는 허0언씨 사망 후 기제사 주관자가 고조부모의 기제사를 지제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 두 사례 모두 죽은 조상과의 직접 대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굳이 기제사를 모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대면관계의 실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실리적인 측면은 두 번째의 이유에서도 나타났다.

두 번째 이유는 4대봉사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데 있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위치가 혈연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던 전통적인 모습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다른 자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혈연자원을 생산하는 기제사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혈연자원만을 생산하고 실리성이 없는 부분은 축소되거나 소멸되어 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비단 기제사 대상만이 아니라 참여자, 제법 등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회천마을의 경우 앞으로 기제사 변화가 있을 부분은 기제사의 대상일 것이라는 대답을 한 기제사 주관자들이 18.51%로 54가구주 중 10가구주나 되었으며 이 답변은 기제사의 형태가 지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 다음으로, 예상되는 변화부분 중에서는 제일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는 산업사회 이후 기제사에 불필요한 요소가 점점 축소·소멸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산업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제사 형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2) 기제사 참여자의 변화

기제사 대상의 변화와 관련해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참여자들의 범위이다. 현재 회천마을에서 기제사에 참여하는 혈연들의 최대 촌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3〉에서 보듯이 직계 가족만 참가하는 경우가 6가구, 4촌까지 8가구, 5촌까지 4가구, 6촌까지 13가구, 8촌까지 16가구로 대부분이 6촌내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촌의 범위까지 기제사 참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며 10촌 이상 되는 가구수들도 6가구나 되고 있어 참여자들의 범위가 변화 선상에 있음이 드러났다.[42] 이를 비율로 따지면 8촌의 범주가 전체 54가구 중 16가구로 29.62%이고 8촌 이하의 비율이 88.88%이었다.

〈표 Ⅳ-3〉 기제사에 참여하는 친척들의 최대 촌수

(단위: 가구)

참여촌수	직계가족	4촌	5촌	6촌	7촌	8촌	10촌	12촌	15촌	계
동회천	4	1	1	4	1	11	1	0	1	24
서회천	2	7	3	9	0	5	3	1	0	30

특히 〈표 Ⅳ-4〉을 보면 회천마을에서 기제사 주관자가 기제사를 처음 맡았을 당시와 현재의 시점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더니 참가범위가 19가구나 달라졌다고 대답하여 35.18%로 기제사 영역에서 제일 많이 변한 범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4〉 기제사를 처음 맡은 당시와 현재 달라진 점

(단위: 가구)

변화내용	기제사시간	헌관수/집사수	기제사절차	참가범위	없다	기타	계
동회천	2	0	1	4	17	1	25(한사람이 둘 선택함)
서회천	3	2	1	15	10	0	31(한사람이 둘 선택함)

이 참가범위의 변화를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표 Ⅳ-5〉와 같이 동회천 마을의 6촌에서 8촌으로 증가하였다는 1가구만을 제외하고 18가

42) 직계 가족만 참가하는 6가구 중 육지부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구가 촌수의 감소를 들었다. 이 감소 현상은 외형상으로는 생활의 변화와 많이 연관되어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기제사 대상의 변화가 참여촌수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Ⅳ-5〉 참여자의 촌수 변화

(단위: 가구)

참여 촌수	6촌→ 가족	6촌→ 8촌	8촌→ 가족	8촌→ 4촌	8촌→ 5촌	8촌→ 6촌	10촌 →4촌	10촌 →5촌	10촌 →6촌	10촌 →8촌	12촌 →6촌	계
동회천	0	1	0	0	0	1	0	0	1	0	0	3
서회천	1	0	1	2	1	2	2	2	3	1	1	16

이러한 기제사 참여자들의 질적·양적 감소는 헌관과 집사 선정에 변화를 낳고 있었다. 현재 기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헌관 및 집사수의 분포는 〈표 Ⅳ-6〉에서 볼 수 있듯이 삼헌관 단집사가 31가구로 제일 많고 삼헌관 양집사가 13가구로 그 다음이었다. 물론 기제사에 참여하는 참여자수와 기제사의 규모에 따라 집사의 수는 단집사에서 양집사로 유동적으로 변하였다. 그런 경우를 조사했더니 3가구가 나왔다. 그러나 단헌관 단집사의 형태가 5가구와 기타 사례로 몇 대가 독자여서 아들이 집사를, 손녀들이 헌관을 서는 1가구 사례도 발견되었다.[43] 이 밖에 삼헌의 형태가 아닌 형태불명의 사례가 1건 발견되었는데, 면접대상자에 따르면 오헌관이 선정되어 제를 지낸다고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오헌관이란 형태는 문헌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는 실제적인 관찰조사가 요구되나 조사기간 중에 기제사가 없어서 차후의 조사로 넘겼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6〉 헌관 및 집사의 형태

(단위: 가구)

43) 이 경우 기제사를 주관하는 강0순(62세)씨가 자신이 아들 후손들을 번창시키지 못해 기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한데 대해 자책감을 느끼고 본인 사후에는 화장(火葬)하고 지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헌관수/집사수	1/1	3/1	3/1-2	3/2	형태불명	기타	계
동회천	1	11	3	8	0	1	24
서회천	4	20	0	5	1	0	30

이들 헌관과 집사는 기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로 그 선정 배경을 살펴보았더니 헌관은 대부분 기제사 주관자나 그의 형제 혹은 기제사 주관자의 아들들이 선정되고 있었으며 집사는 〈표 Ⅳ-7〉처럼 대부분의 손자나 조카 등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선정하여 집안의 제법을 전수 받도록 교육하고 있었다. 이외에 사돈댁의 풍습을 익히도록 사위를 선정하는 경우와 손자들이 없거나 너무 어린 경우에는 기제사 주관자의 형제들이 집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헌관과 집사 선정은 여전히 개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히 집사를 선정함에 장남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2가구 있었는데, 이 경우는 육지부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경우로 육지부의 기제사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차후 기제사를 승계할 장남에게 집안의 제법을 전수하기 위하여 굳이 장남을 고집하여 집사 일을 보게 하였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서 필자는 제주지역의 기제사 분할승계가 헌관 및 집사선정의 개방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표 Ⅳ-7〉 집사 선정 배경

(단위: 가구)

배경	손자,조카,어린사람		사위		형제	친척중 오는사람	장남	기타	계
	제법전수	수부족	사돈풍습전수	수부족					
동회천	14	4	3	1	1	0	0	1	24
서회천	23	0	1	1	1	2	2	0	30

제법전수를 위한 후손들의 집사 선정은 〈표 Ⅳ-7〉처럼 총 54가구 가운데 37가구로 68.51%를 차지하고 있어 집사의 수나 집사를 선정하는 목적의 변

형된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집사와 문헌을 통해 제법을 전수시키고 있는 형태가 적고 오로지 집사행위만을 통해 제법전수를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Ⅳ-8〉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법의 전수 형태에 대한 분포이다.

〈표 Ⅳ-8〉 제법의 전수 형태

(단위: 가구)

전수형태	집사	집사+문헌	기타	계
동회천	16	2	6	24
서회천	21	9	0	30

그러나 제법전수 때문에 집사를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표 Ⅳ-7〉를 보면 '집사 선정 배경'에 기제사에 참여하는 '참여자수가 부족하여 ' 집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던 가구가 5가구 있었다. 이들 중 동회천 마을의 김0호(66세)씨와 서회천 마을의 백0순(57세)씨는 10촌들이 참가하던 기제사가 참여자들의 바쁜 생활과 거리상의 이유로 점점 줄어들면서 집사를 청장년층의 조카들이 맡을 정도로 애를 먹고 있었다.

동회천 마을의 전0범(65세)씨의 경우는 이런 산업화의 영향과는 달리 4·3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얼마나 기제사의 변형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전0범씨는 1년에 12번의 기제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4·3의 피해로 증조부모와 증조부의 3형제, 그리고 조부모와 조부의 3형제 및 부모를 모두 잃어서 증조부대(曾祖父代) 이하의 자손이 본인 뿐이라, 본인을 기준으로 증조부의 8촌 후손들이 기제사에 현재까지 참여함으로써 15촌이라는 넓은 범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참여자수가 극히 적어 사위가 집사로 선정되고 있었다. 이외에 강0생(59세)씨의 사례는 증조 이하의 6촌 자손들까지 기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가족구성원의 소수로 인하여 회천마을의 유일하게 단헌관 단집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표 Ⅳ-9〉는 위 사례에 대한 표이다.

실상, 표면적으로 헌관과 집사의 형태에서 달라진 모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김0호씨와 백0순씨 두 사례에서 가족형태의 변화는 단헌관,

단집사의 형태로 갈 소지를 남기고 있었다.[44]

〈표 Ⅳ-9〉 집사 선정 배경-'참여자수가 부족하여...'

마을	성	현재 모시고 있는 기제사	참석하는 촌수	달라진 촌수	헌관수/집사수	집사	헌관	기제사를 맡게 된 배경
동회천	김모씨(66세)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모	6촌	10촌→6촌	3/1	조카	본인, 셋째아들, 네째아들	독자이기 때문에
	전모씨(65세)	증조부·모 및 증조부의 3형제, 조부·모 및 조부의 3형제, 부, 모	15촌	없음	3/1	사위	본인, 아들2	4·3에 모두 죽어 혼자만 남았으므로
	강모씨(59세)	증조부, 남편	6촌	없음	1/1	조카	아들	조부가 맡던 기제사여서
	정모씨(58세)	모	형제들만	없음	3/1	조카	본인, 형, 큰조카	차남이지만 기제사분할로
	허모씨(43세)	고조부·모, 셋부·모	8촌	없음	3/2	8촌형제2	본인, 조카, 형	셋부에 양자를 감
서회천	백모씨(57세)	부, 모, 남편	4촌	10촌→4촌	3/1	조카	아들2, 시동생	장손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논의되는 주제들의 변화

회천마을에서 최근 2년간의 기제사 때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파악하였더니 〈표 Ⅳ-10〉과 같이 나왔다.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혈연공동체의 공식적인 의례 및 대외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혈

44) 회천마을의 54가구 중 14가구가 독자이기 때문에 기제사 분할을 않고 전(全)기제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마을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 형태를 앞으로의 문제로 내다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10명의 기제사 주관자들은 기제사 참여자가 축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독자현상으로 형제들에게 나누던 기제사 분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우도 많았다.

연공동체의 공식적인 의례로 벌초(伐草, 성묘)행사와 묘제가 단연 으뜸으로 꼽혔다. 벌초행사에 대한 논의는 총 54가구 중에 29가구가 의논했던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이 의례적 행사들을 통하여 개별 가족 및 친척을 혈연공동체로 묶어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음력 8월 초순의 벌초행사는 다른 지역에서 추석날 오후에 하는 것과는 달리 음력 8월1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날을 정하여 모든 혈연공동체들이 참가할 정도로 큰 행사로 여겨, 지역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벌초방학이라는 명목의 휴가일을 줄 정도로 공식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벌초행사의 논의 외에 가족공동묘지 마련이 6가구, 산소정비가 12가구, 문중활동이나 족보에 대한 논의가 9가구, 비석을 세우는 일이 10가구 등으로 나타나, 논의되는 주제들이 예전에 비해 점점 혈연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45] 이 중 과거, 많은 경비를 소모하고 번잡한 의례절차를 통해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는 문중활동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제주민들의 의식구조에 접맥하기 어려웠을 것(이창기, 1995)이라는 연구와는 달리 〈표 Ⅳ-10〉과 같이 많은 경비를 소모하는 문중활동이나 족보, 가족공동묘지 마련[46] 등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위세를 드러낼 필요성이 나타난 것으로 기제사 대상과 참여자 범위가 축소되는 것에 비해 그들이 논의하고 행하는 주제들이 확대되는 것은 산업사회 안에서 적정 기제사 대상과 참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표 Ⅳ-10〉 최근 2년간 기제사 때 논의되었던 주제들

(단위: 가구)

주제	벌초	묘제	산소정비	비석	기제사(법/분할)	묘지마련	문중/족보	농사	재산
동회천	14	4	9	6	1	4	5	5	0
서회천	15	6	3	4	5	2	4	1	1

45) 동회천 마을의 경우 정부에서 허가된 가족공동묘지를 소장하고 있는 집안은 채씨, 백씨, 이씨, 김씨 집안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마을의 대표적인 성씨의 집안들이었다.
46) 제주지역의 묘지에 대한 논문은 David J. Nemeth(1987) 등의 연구가 있다.

이외에 최근 2년 동안 기제사에 참여하는 친척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물음에 54가구 중 14가구주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종류는 자녀 취직, 금전, 농사(과수원)일손, 자녀혼인, 선거 등으로 나타나 부탁의 종류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제사를 통하여 54가구 중 36가구주가 조상우대보다는 가족의 단합을 꼽고 있었는데, 이것은 친척들이 가까운 거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과거와는 달리 서울, 제주시 등 먼 거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일상적인 접촉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기제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족회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혈연자원이 재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 기제사의 승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회천마을도 기제사 승계에서 기제사 분할승계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47] 〈표 Ⅳ-11〉를 보면 차남 이하가 제사를 분할하여 맡은 경우 10가구가 나타났다. 장남이 기제사를 맡는 23가구 중에서도 기제사 분할에 따라 조부(祖父)와 부의 기제사를 맡은 경우가 많았으며, 차남의 경우는 대부분 모(母)의 기제사를 분할하여 맡고 있었다. 또한 기제사를 지내줄 후손들이 없는 경우는 직계 형제들의 후손 중에 장남을 제외한 차남 이하의 후손들을 후손 없는 조상의 기제사를 위해 양자를 보내고 있었다.[48] 그러나 양자를 보낼 만큼의 여유 자손이 없는 경우는 남은 후손이 기제사를 모두 지내고 있었다. 동회천의

47) 제사분할에 대한 연구는 이창기(1995: 1998) 등을 참조.
48) 제주지역에서는 기제사를 위해 언제부터 양자가 시행되었는지 파악이 안된다. 그러나 金光億(1986: 109-127)은 '중국에서 양자를 간다는 것은 한국에서 족보에 이름을 올려 대를 잇는다는 의미보다는 특정인의 제사를 지내줄 사람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있어 제주지역의 경우 후자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많아 조선의 출륙금지령 정책 하에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선사회 이전에 이미 이러한 형태가 제주지역에 들어왔는지 혹은 조선사회에서 유입된 양자 형태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변형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경우는 최대 1년에 12번의 기제사를 모시는 사례도 있었다.

〈표 Ⅳ-11〉 주관자들의 기제사 승계방식

(단위: 가구)

승계 방식	장남 이므로	독자이므로(형제들이 사망하여 된 경우도 포함)	기제사분할로 (차남이하)	양자감	기타	대답하지 않은 경우	계
동회천	6	9	4	4	1(양위)	0	24
서회천	17	5	6	0	1(조부와동거인연)	1	30

이 기제사 분할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이 제월전(혹은 위토(位土))의 상속이다. 제월전은 조상의 제사를 맡는 조건으로 조상의 토지재산을 기제사 승계자에게 경작하도록 넘겨주는 것으로 기제사를 지내는 경제적 기반이다. 그러나 제월전을 상속받은 이가 다른 용도로 제월전을 팔아, 다음 대에 넘겨주지 못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천마을에서의 제월전의 상속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표 Ⅳ-12〉와 같이 총 54가구 중에 7가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선대의 조상이 제월전을 처분하여 승계 받지 못한 경우도 4가구 정도 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12〉 제월전 상속

(단위: 가구)

상속	상속	비상속	대답하지않음	계
동회천	4	20	0	24
서회천	3	26	1	30

그러나 제월전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지니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제월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조상을 잘 모시면 그 은덕이 후손들에게 가고 본인 또한 후손들에 의해 잘 모셔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기제사를 맡게 되었을 때의 느낌을 물었을 때 〈표 Ⅳ-13〉과 같이 총 54명의 기제사 주관자 중 42명이 당연히 내가 맡아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42명은 적어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에 비해 기제사를 분할하여 다른 형제들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한 경우가 9건으로, 이들 중 7건은 기제사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이들의 연수입은 〈표 Ⅳ-14〉와 같이 제사수에 비해 열악했다.

회천마을에서 제월전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제월전을 상속받은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현재 귤로 경제적 부를 획득한 주관자들이 기제사를 모시는데, 제월전이 없다고 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표 Ⅳ-13〉 기제사를 맡을 당시의 느낌

(단위: 가구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느낌	당연히 내가 맡아야 했다	기제사분할로 다른 형제가 맡았으면 했다(다른형제)	기타	대답하지않음	계
동회천	23	1	0	0	24
서회천	19	8	2	1	30

〈표 Ⅳ-14〉 '기제사 분할로 다른 형제가 맡았으면...
'하는 가구수의 연수입과 연제사수

(단위: 연수입-만원/연제사수)

주관자	최00	양00	김00	송00	문00	김00	고00	송00	강00
연수입	2천	3천	2천	2천	2천	1천5백	3억	3천	1천5백
연제사수	1	4	2	3	4	1	4	4	4

3. 물적 요소의 변화와 기제사

물적 요소의 변화는 인적 요소의 변화보다 더 많은 새로운 요소들을 기제사에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제사 제법이나 기제사 제수(祭需) 그리고 부조(祭酒, 祭物), 제사장소의 형태 변형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제법의 변화

제법의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제의 시간이다. 사실 제의 절차 변화가 있으나 모든 가구의 현장관찰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다루지 못했다.[49]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제의 시간에 한정하여 제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 당시 회천마을의 기제사 봉제시간 분포는 〈표 Ⅳ-15〉와 같이 21시 이전이 동회천 마을과 서회천 마을에 각각 1가구씩 있으며, 23시가 14가구, 23시30분 이후가 27가구, 24시 이후가 13가구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23시를 자시로 볼 것이냐, 23시30분 이후를 자시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마을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50]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들이 23시 이후에 지내고 있다는 점은 기제사 변형이 시간상에서는 아직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21시 이전이 2건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었다. 특히 동회천 마을의 경우 자손들이 조금씩 제시간을 앞당겨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던 김0령(78세)씨가 23시 정각에 하는 것이나 21시에 하는 것이나 모두 당일제인데 굳이 23시에 할 필요가 있냐며 자손들이 21시로 옮기는 것을 내버려두었다. 이 경우는 바쁜 직업생활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9) 면접에 의존할 수 있으나 면접대상자들이 절차의 전문적인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50) 자시(子時)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자시는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자시의 논란은 죽은 날짜가 명확한 조상에 한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4·3 등 기일을 모른 경우는 죽은 조상의 생일날 당일제로 행하여 21시 이전에 지내고 있었다.

거주지와 기제사집과의 거리상의 이유로 시간 조정을 주장한 자손들의 의견에 김0령씨 본인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이것에 대해 동네 사람들의 비판이 많았으며, 본인도 현재의 기제사를 충실히 지키지 못한 것을 불효로 생각하여 본인 사후의 기제사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지 못했다.

〈표 Ⅳ-15〉 기제사 봉제 시간

(단위: 가구)

시 간	21:00 및 이전	23:00	23:30이후	24:00 및 이후	계
동회천	1	6	13	4	24
서회천	1	8	14	7	30

사실 제의 시간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점은 종교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제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제법은 종교성과 아주 밀접히 관련된 분야이다.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혈연공동체들은 사회의 질서를 위한 새로운 혈연자원으로 거듭나려 한다. 따라서 그 의식의 절차는 종교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시간의 변동은 종교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이 좁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였다.

2) 기제사 제수(祭需)의 변화

기제사 제수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었다.[51] 왜냐하면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데다 제주지역은 육지부의 제수 종류와 다른 점이 많으며, 변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선 자료를 토대로 전통적으로 육지부와 제주지역의 제수종류의 차이점을 개괄하고 제주지역의 제수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회천마을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51) 제수(祭需)는 제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음식을 지칭한다.

써 파악하고자 했다.

〈표 Ⅳ-16〉 육지부와 제주지역의 제수 차이

제수의 종류	육지부(전반적)	제주지역
메	밥	밥
면	국수	하지않음
편	떡(백편)	떡
삼탕	육탕,소탕,어탕	메밀묵
삼적	육적,소적,어적	육적,소적,어적
채소	삼색(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2색정도(고사리,콩나물)
청장	간장	대체로 하지않으나, 집안에 따라 다름
식해	젓갈	하지않음
포	북어류, 육포 등	말린옥돔구이
갱	국	국
유과	약과, 강정	하지않음
당속	흰색사탕	하지않음
다식	녹말다식, 송화다식, 흑임자다식 등	하지않음
정과(전과)	연근정, 생강정, 유자전과 등	하지않음
과실	대추,밤,배,감(곶감),사과	배,사과,감(항상은 아님),귤
제주	청주	소주
경주	숭늉	숭늉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육지부의 제수는 인테넷의 자료
(http://kidnet.chosun.com/contest/1022/htm/jealae.htm#k6)를 이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제주지역의 것은 연구자가 조사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위의 제수항목과 종류는 세부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표 Ⅳ-16〉은 육지부와 제주지역의 제수의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제수는 기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육지부 경우, 제수는 국수나 다식, 전과, 밤, 대추 등 논농사 및 밭농사와 관련된 음식이 많다. 그에 비해 제주지역의 경우는 육지부에서 북어류나 육포를 올리는 것을 대신해서 옥돔이나 그에 상당하는 어구이를 올린다. 이것은 바다와 관련한 생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생업과 관련된 옥돔을 굽는 일은 주로 남성들이 맡아서 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할 수록 제수 준비는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고 이것은 금기사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시대변화에 따라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

로 남성은 제를 모시는 사람으로 여성은 제에 참여하지 못한 채 제수만 마련하는 사람으로 전락시켜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의 일반적 사례를 토대로 〈표 Ⅳ-17〉은 제주지역의 제수 변화를 살펴 본 것이다. 제주지역의 변화는 회천마을의 사례를 정리하였다.[52] 우선 〈표 Ⅳ-17〉에 나타나는 제수의 변화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두드러진 것이 각종 과일과 튀김, 전류 등의 등장이었다.[53] 이외에 타지에서 나는 것은 절대 올릴 수 없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수입 쇠고기로 소적을 하는 사례와 수입산 바나나, 수입산 고사리[54], 인스턴트류 등이 제수로 마련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었다. 과일류의 진설이 많아진 것은 환금작물의 도입과 관련되었다. 귤은 환금작물 재배가 보편화되면서 기제사상에 오르는 보편 음식이 되었다.

제사상에 오르는 제수는 사회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기제사에서 인스턴트류의 제수가 기제사상에 오르는 것은 부정탄다는 인식이 강해, 진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엿이 기제사상에 인스턴트류가 진설됨으로서 산업사회가 기제사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수입산 제수류도 마찬가지다. 귤작물 또한 젯상에 오름으로써 회천마을내에서 일어난 1차 산업의 변화 즉 귤작물을 매개로 한 생산관계 및 생산기반이 정당성을 확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젯상에 오르는 음식을 제외하고 가족 및 친촉들만이 먹을 수 있는 별미를 구분하여 만드는 사례들도 종종 발견되었다. 회천마을의 김00씨 집안의 경우에도 기제사상에 오르지 않는 잡채와 회, 갈비찜 등을 만들어 가족과 친지들의 밥상에 내놓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제사의 음복형태가 달라지고 있었다.

---

52) 제수조사는 구체적인 현장관찰이 유용하나 여기서는 면접에 의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53) 보통 전류는 잔칫상에 많이 오르는 음식인데, 제수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최근의 조리법에 의해 탄생된 튀김류도 조상의 입맛을 위주로 했다기 보다는 살아있는 혈연들의 입맛을 위주로 탄생된 음식이라고 보여진다.

54) 전통적으로 제주지역에서 고사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고사리는 매우 깨끗한 땅에서 자란다 하여 신성한 음식으로 여겼다. 또한 꺾어도 계속 자라난다는 뜻에서 7전8기의 생활상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기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쉽게 수입산으로 바뀔 수가 없는 음식인데, 수입산으로 바뀌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는 주목할 만 하다.

〈표 Ⅳ-17〉 제주지역의 제수 변화

제수의 종류	1980년대 이전	1980년대 이후
메	밥	밥
편	떡	떡(백편,송편)
삼적	육적,소적,어적	육적,소적,어적
채소	2색정도(고사리,콩나물)	고사리,콩나물,시금치(잡채)
포	말린생선구이	말린옥돔구이
갱	국	국
과실	배,사과,감(항상은 아님)	배,사과,감,귤,파이애플(계절에 따라),수박(계절에 따라)
제주	소주	소주
경주	숭늉	숭늉
새로 생겨난 제수들		
전류		어전, 채소전, 햄전, 버섯전, 튀김류 등
묵	메밀묵	여전히 메밀묵이 많으나 청묵, 또는 케익가루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음복이란 본래 제를 파제하고 나서 먹는 음식으로 죽은 조상이 먹었던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예전에는 이 음복의 시간이 24시 정도였으며, 기제사상에 올랐던 모든 음식들을 '반'이라 하여 개개인에게 모두 나누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음복에 참여했으며 이 '반'을 받는 것은 기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마지막 기제사 절차 중의 하나였다.[55]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음복의 형태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미 제를 지내기 전인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젯상에 올리다 남은 음식과 별미를 갖고서 참여자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작 음복시간에 음복에 참여하는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과일이나 떡 등의 다과만을 들고서 음복을 끝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제수와 더불어 많이 완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산업사회가 기제사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 혈연자원 형성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였다.

55) 물론 음복에 모두 참여했던 것을 삶의 어려움 때문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음복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먹을 음식이 많아져 그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진 Ⅳ-1〉 제수(祭需)의 변화-위쪽 왼쪽 사진에는 쵸코파이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 그 옆 사진에는 수입 바나나, 잡채, 귤 파이애플이 등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옆 사진은 딸기와 빵 등의 음식이 올라갔다.

학교 중앙도서관
NAL UNIVERSITY LIBRARY

3) 부조(扶助)의 변화

회천마을도 10여년 전까지 기제사에 참여하는 친척들이나 이웃이 제사집에 떡을 찌어 부조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다 그후 3-4년 전까지는 쌀과 술부조가 90%이상을 차지하였다. 쌀부조가 들어오면 그 쌀로 기제사에 참여한 친척과 이웃들이 밥을 지어먹고 밥을 다시 나눠 가져갔다. 그러나 가족의 동일 거주지 해체와 기제사 참여에 이웃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부조의 형태는 직접적인 생산물의 형태가 아니라, 현금으로 바뀌었다.

회천마을의 조사에서도 혈연내 현금부조 현상이 나타나는 가구수가 총 54가구 중 15가구나 되었다. 이 비율은 27.77%로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쌀부조의 형태도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포장쌀이 대부

분이었으며, 빵을 제물부조로 하는 경우도 8가구나 되었다. 근래에 와서 현물부조는 대부분 친척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었으며, 동네 이웃의 부조는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제사 음식을 동네에 나눠주는 행위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표 Ⅳ-18〉를 보면 동회천 마을 24가구와 서회천 마을 30가구의 현재 부조형태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Ⅳ-18〉에는 쌀부조와 현금부조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기제사가 여전히 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변화는 현금이 기제사를 통해 혈연 내에서 상호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18〉 부조를 받고 있는 형태

(단위: 가구)

동회천 마을			
D1	술1병	D13	돈1만원
D2	쌀1되(가까운 친척은 1말)	D14	쌀1말
D3	쌀2되(가까운 친척은 1말), 술1병	D15	돈2만원, 쌀1말, 술
D4	형제간 돈1만원, 친척 친구 친목은 쌀 2되	D16	돈1만원
D5	쌀1되~2되	D17	쌀1말
D6	돈2만원	D18	돈1만원, 쌀2되, 술, 음료수
D7	돈1만원	D19	쌀1되, 소주
D8	쌀, 술	D20	쌀2되~1말, 소주
D9	돈 약간, 선물 약간	D21	쌀 2되
D10	쌀2되~1말	D22	돈2만원
D11	쌀2되	D23	받는 것이 없다
D12	쌀1말	D24	돈1만원, 쌀1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회천 마을			
S1	쌀1되~2되, 술	S16	없다
S2	쌀2되~반말	S17	돈1만5천원~3만원, 쌀2되, 술
S3	쌀5-6말, 빵	S18	돈2만원~3만원, 쌀2되, 술, 빵
S4	쌀2되, 술, 빵	S19	돈2만원~3만원, 쌀1되, 술
S5	쌀2되~한말	S20	쌀2되, 술
S6	쌀, 술, 빵	S21	돈1만원~2만원, 쌀1되~1말
S7	쌀, 술, 빵	S22	쌀2되
S8	쌀1되, 술	S23	돈1만5천원~2만원, 쌀1말
S9	받는 것이 없다	S24	쌀, 술
S10	쌀1되, 술	S25	쌀1되, 술, 빵
S11	쌀1되~2되, 술, 빵	S26	쌀, 술
S12	쌀, 술	S27	쌀2되(가까운친척은 1말), 빵
S13	쌀1가마니	S28	받는 것이 없다
S14	받는 것이 없다	S29	쌀1되, 술
S15	쌀1되~2되, 술, 떡	S30	없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가옥구조의 변화와 기제사

제주지역에서 혈연공동체의 성격 변화는 가옥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이 가옥구조의 변화에는 산업화라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전통적인 안거리, 밖거리, 혹은 두거리, 삼거리, 네거리의 가옥구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통적인 제주지역의 가옥구조는 정지(부엌), 고팡(곡식창고), 구들(방), 마루가 하나의 가옥에, 통시(변소)가 또 하나의 가옥으로, 그리고 쇠막(소가 있던 축사)과 농기구를 놓던 창고가 다른 가옥으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가옥구조는 창고를 제외한 모든 시설들이 하나의 가옥으로 들어갔으며, 불필요한 시설들은 사라지기까지 했다. 특히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 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가시화 되고 주거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높아지면

서 이러한 정부 전략적 농촌주택의 재배치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주택구조의 변화가 의례 변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는 차후의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가옥구조의 변화는 무속제와 기제사를 모시는 장소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회천마을에서는 최근 10년동안 전통가옥에서 신가옥의 형태로 집을 신축한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그린벨트로 회천마을이 묶여 있어서 집을 신축하지 못하다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혜택[56]으로 원래 집터에 가옥신축이 허용되면서 귤작물을 통해 부를 축적한 주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많아졌다. 이런 신축가옥이 들어서면서 기제사와 관련하여 새로 생겨난 것이 기제사방이었다. 특별히 육지부의 사당과 같은 격은 아니지만, 예전의 제주지역의 기제사가 특별히 제의례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제사방이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회천마을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집안 중에 제사방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40가구였으며, 모두 가옥을 신축한 뒤 생겨났다. 이점은 귤작물의 유입에 따라 부의 축적이 가능했음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 제사방은 대체로 문의 형태가 미닫이문 4짝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여닫이문은 절대 안되며, 미닫이문 4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양쪽으로 사당처럼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 제사방은 평소에 미혼자녀가 기거하거나 그냥 비워두고 있었다. 성관계를 갖는 부부의 경우는 제사방을 부정타게 한다 하여 기거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나 2-3가구 정도는 부부가 평소에 기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러한 제사방의 마련은 가옥들이 신축되면서 생겨났지만, 정확히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었다.

다음은 가옥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 무속제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회천마을은 연초에 리사제를 지내기 전에 당신에게 고하고 지낼 만큼 무속제가 강한 편이었다. 여전히 절기마다 당신에게 제를 올리고 있으며, 당제와 관련하여 마을 논의도 많았다. 그러나 기제사와 더불어 나타나는 개별 가구의 무속제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우선 가옥을 신축한 뒤 무속제가 사라진 경우

56) 마을주민들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 가옥신축이 허용되지 않아 마을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인해 한정적이지만 기존 가옥에 대한 신축이 허용되면서 우호적 입장을 드러냈다. 따라서 주민들이 표현상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혜택으로란 말을 쓰고 있어서 연구자도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가 6가구로, 보통 고팡제와 조왕, 그리고 쇠막제 등이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측간(통시-변소)에도 제를 지냈던 것 같으나, 사라진 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57]

57) 제주지역의 경우는 예로부터 문전제, 고팡제, 조왕제가 일반적으로 기제사와 함께 있어왔으며 특히 고팡제는 농촌마을에서 곡물을 담당하는 신이 자리한 곳이라는 관념 때문에 어느 무속제보다 잘 모셔져 왔다. 문전제는 본 제의례에 따른 설상을 할 때 작은 상에 선조 제상에 올린 제물 각종을 몇 접시에 종류별로 겸하여 올린 다음 본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지내는 제의로 조상신을 모시고 오는 문전신을 위한 제의라고 하기도 하고, 집밖을 떠도는 잡신들을 위한 제의라고도 하나 마을마다 집안마다 해석의 의미가 다르다. 단 여기서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조상신을 제외한 무속신의 범주로서만 보려한다. 이외의 고팡제는 부와 재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드리는 기원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농업사회에서 곡식을 쌓아두는 고팡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다. 조왕제는 가내의 안녕과 건강을 의미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의로 부엌에 자리한다.

이 세 가지 무속제의는 농촌마을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으로 회천마을의 경우도 총 54가구 중 문전제와 고팡제 조왕제를 모두 지내는 경우는 20가구, 문전제와 고팡제만을 지내는 경우는 12가구, 문전제와 조왕제만을 지내는 경우는 2가구였다. 그 외에 단지 문전제만을 지내는 경우는 서회천 마을이 12가구로 동회천 마을의 2배 가량 되었다. 〈표 Ⅳ-19〉는 현재 기제사에 같이 지내고 있는 무속제들의 분포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19〉 현재 지내고 있는 무속제들

(단위: 가구)

무속제	문전/조왕/고팡	문전/고팡	문전	문전/조왕	대답하지않음	계
동회천	14	3	7	0	0	24
서회천	6	9	12	2	1	30

이 기본적인 무속제 외에 차나 경운기 등에 제의례를 모시는 경우는 총 7건이며 경운기에 제의례를 모시는 경우, 예전의 농기구 창고에 하던 것을 대신해서 하고 있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뜻에서 모셔지고 있었다. 안택제를 하는 집의 경우는 기제사가 끝난 다음날 절에 가서 기제사를 모셨던 음식으로 제를 지내고 있었고, 성주상을 차리는 경우는 육지부에서 들어온 집안의 경우였다. 이는 마을의 신인 성주신을 위한 상을 이사를 오고 나서도 계속 모시고 있는 것으로, 성주신이 가내의 안녕과 행복을 준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적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례였다. 〈표 Ⅳ-20〉은 문전제와 조왕, 고팡제를 제외한 그 외의 현재 지내고 있는 무속제에 대한 현황이다.

무속제의 두드러진 변화는 그 종류의 숫적 감소보다는 의례내용의 간소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따로 지내던 절차가 사라지고 잡식한 것을 둘러 던지는 정도로 제를 지냄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먼저 고팡제를 살펴보면 고팡제는 본 제에 비해 비교적 약식의 제로서 문전제 다음으로 큰 무속제였다.[58] 그러나 가옥의 구조가 바뀐 지금은 안상의 형태로 변하여 본 기제사상 옆에 놓여 본 제를 지낼 때 남성들이 같이 지내고 있었으며, 잡식(雜食)된 음식은 집안의 깨끗한 곳에 버리고 있었다.[59] 조왕제는 문전상처럼 본 상에 오르는 갖가지 음식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부뚜막에 일정 시간 놓아두거나 주부가 제를 지냈는데, 금은 문전제를 지내고 난 뒤 잡식된 음식을 가스렌지 위에 일정시간 동안 부어놓음으로써 그 행위가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농기구에 지내던 제를 경운기에 지냄으로서 그 대

〈표 Ⅳ-20〉 기타 무속제의 현황

(단위: 가구)

무속제	안택제	차	경운기	성주상
동회천	1	2	1	
서회천	0	2	2	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특별히 이전에 모시던 무속제를 모시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단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점은 가옥신축이 많아지면서 무속제가 약식으로 치러지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가옥구조와 무속제의 형태변화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냈다. 〈표 Ⅳ-21〉은 이전에 지내다 현재 지내지 않고 있는 무속제들의 현황이다.

〈표 Ⅳ-21〉 이전에 지내다 현재 지내지 않고 있는 무속제

(단위: 가구)

무속제	고팡제	기타	없다	계
동회천	1	3	20	24
서회천	2	0	28	30

58) 문전제를 무속제로 보는냐 보지 않느냐는 논란이 존재한다. 무속제로 보는 입장은 조상신 외의 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보지 않는 입장은 본 제와 같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전제를 무속제로 보고자 한다.

59) 본 제가 끝나고 기제사상에 오른 음식들을 조금씩 모두 뜯어 한 그릇에 모아 조상신을 따라온 잡신들에게 나눠준다는 음식으로 제주지역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행위인지는 차후의 조사가 필요하다.

상이 바뀐 사례도 3건이 발견되었고, 자동차에 대한 제도 4건이나 발견되었다. 이 외에 성주상에 대한 제가 1건이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는 육지부에서 회천마을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였다.

무속제들은 대체로 신이 기거하는 장소에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둠으로써 제를 마치고 있었는데 특별히 제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생겨나는 무속제들은 유교식의 제법을 약간 도용하여 따르는 듯 했다.

무속제의 변화는 의례들이 점점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의례 대상이 점차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중심에서 남성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신종 무속제는 유교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가옥구조의 변화로 현 사회에서 무의미한 무속제는 상징적 행위만 띠면서 점점 축소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산업사회에서 유용한 대상에 대해서는 점점 더 유교식 기제사와 동일한 구조를 갖으면서 유교식 기제사처럼 혈연자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진 Ⅳ-2〉 제사방의 전경이다. 제주지역에서 제사방을 따로 두던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최근에 와서 회천마을도 가옥구조가 변하면서 제사방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진 Ⅳ- 3〉 조왕제의 갖가지 형태들이다. 예전에는 위쪽 맨 왼쪽의 형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나, 가옥구조가 바뀐 다음부터는 점차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의 형태들로 축소·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Ⅳ-4〉 위쪽 사진들은 고팡제를 위해 마련한 음식들. 고팡제는 이제 더 이상 고팡에서 지내지 않고 본 상 옆이나 집안의 부를 나타내는 장소에서 지내지고 있다. 바로 옆 사진은 문전제를 지내는 모습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기제사

1. 마을공동체의 변화

마을공동체의 성격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선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노동이며, 다른 하나는 놀이이다. 이 두 개의 범주 속에서 얼마나 마을의 공동체 성격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제주지역 농촌마을의 공동체 성격은 노동력을 공유한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수눌음은 노동력 공유가 마을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생활의 요소인가를 보여준다.[60] 일상 생활에서 육지 마을과는 달리 친족조직보다는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져 왔다. 따라서 노동력 공유는 개별 의례에까지 확산되어, 마을 내에 혼례나 상례가 있는 경우 노동력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의례에까지 수눌음의 형태를 보인다. 그것은 의례진행시 노동력의 제공이라든가 부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환금작물 경제 하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마을조직들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점점 와해되고 환금작물 경제에 적합한 조직체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성격은 완화되기 시작했다.[61] 더불어 3차 산업의 발달은 농촌마을 인구를 도시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농촌마을 내에서의 노동관계는 더 이상 전통적인 수눌음의 관계가 아니라 시

60) 수눌음은 노동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지역의 언어로 육지부의 두레와는 달리 뚜렷한 조직의 형태를 갖지 않고 구두로서 서로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

61) 김창민(1993)은 환금작물 경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에 적응적인 사회조직체들이 요구되었고, 환금작물 경제는 영농방식을 분화시켰고, 각각의 영농방식마다 작목반이 조직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직들은 생산을 위한 자재 구매와 출하를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성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던 기존의 사회조직체들은 비합리적으로 인식되어 환금작물 경제에 비적응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조직체에서는 합리성과 경제논리가 강조되어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파편화되고 마을의 공동체성도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장경제하의 임노동 관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회천마을 역시 귤작물 도입 이후 그에 적합한 조직체인 작목반들이 생겨났고, 마을의 전체적인 의례나 행사에 귤작목반 회원들이 갖는 영향력은 상당하였다. 실제로 마을 내의 공식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작목반원이었으며 그들은 마을내의 전반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시 근교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들은 3차 산업의 중심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교육과 취업을 위해 떠나고 있었으며 그린벨트지구라는 이유도 악재로 작용하여 마을 내의 인구유출이 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주소지만 회천마을로 남겨놓고 마을을 떠나 살고 있는 사례도 전체 가구수의 20.52%나 되고 있어, 명목상의 가구수와 실제의 가구수에도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62] 뿐만 아니라 감귤을 따는 겨울철에는 일손이 없어 인근 마을까지 가서 일손을 구할 정도였으며, 본 마을과 떨어진 과수원에 관리자와 임대농업자로 외지에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도 전체가구수의 14.56%나 되었다. 회천 마을에서의 노동관계는 이제 임노동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었다.[63] 이러한 노동관계의 변화는 의례에도 드러나, 마을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개별 혼례나 상의례의 참여자들 중에 실제로 서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평소 노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례를 위해 일부러 조직되어 있는 친목단체나 혹은 귤출하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 조직된 작목반의 반원 및 부인회 회원이 대다수였다. 특히 서회천 마을의 경우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수가 마을 총 인구의 50%를 상회해 상례나 혼례에 서로 참여하는 경우가 동회천 마을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그것은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 중 도시에서 이미 개별적 삶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고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도시로 나가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 마을공동체 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마을인구의 유출과 유동인구의 영향 그리고 산업의 발달은 회천마을의 공동생활권-통혼권, 신앙권, 교육권, 시장권, 여가권-을 개별적으로 분산시키고 있었다.[64]

---

62)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모가 회천에 거주하고 교육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자녀들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과수원과 농장이 회천마을에 있는 경우에 해당했다.

63) 조사 당시 실제 하루 노임은 2만5천원이었으며, 노동 인구가 적어 노인분들도 웬만하면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64) 공동생활권은 그 마을 주민이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범위를 일컫는 것으로 강세현(1998: 485-531)은 거래권(시장권), 통혼권(혼인권), 신앙권(종교

2. 인적 요소 변화와 기제사

마을공동체의 성격변화는 의례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특별히 마을공동체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의례는 혼례, 상례, 제례 등이다. 그 중에서 제의례는 마을공동체의 성격변화를 많은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기제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이웃의 참여변화

제주지역에는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친척이더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마을이 모두 집성부락이라는 말이 아니라, 부계친, 모변친, 친외가친, 처가친 외에도 자기의 방계존속, 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직계 후손을 모두 친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성동본까지도 친척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친척을 호칭하는 용어가 '궨당' 혹은 '삼춘(삼촌)'이다. 따라서 한 마을 내에 궨당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친한 이웃까지 모두 궨당으로 보는 시각은 지역집단을 친척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폭넓은 노동력 동원을 이루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창민, 1995).

그러나 마을이 귤작물과 관광산업이라는 시장상황에 놓이면서 이웃 궨당의 성격은 시장사황에 맞는 틀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참여하는 의례에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의례 중에서 이웃의 성격 변화가 현저히 드러나는 것이 기제사인데, 예로부터 마을에 기제사가 있으면 마을 이웃들은 제물이나 제주 등의 부조를 들고서 제사 집을 찾아갔던 것이 관습처럼 되어 왔다. 이웃은 궨당자격으로의 참여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참여는 노동력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한 의례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한 집안의 친척으로 공증 받는 것

권), 교육권(통학권), 여가권으로 나누고 있다. 연구자는 이 분류에 동의하며 이를 따르고자 한다.

처럼 인식되어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왔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기제사에 이웃의 참여는 희소한 현상이 되고 있다. 회천마을에서도 이웃집 기제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2-3가구밖에 되지 않았으며, 기제사를 통하여 궨당이라는 인적 관계를 공증 받지 않더라도 경제적 활동에 별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회천마을 주민들은 이웃의 기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3-4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떡반을 돌리는 것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기제사에 마을주민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단절시켰다. 참여하는 부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친목계조직이나 작목반 조직의 일원이었며, 친목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마을 외의 사람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65] 실제적으로 마을 내에서 이웃에 참여하는 사례는 점점 감소하고 있었으며 〈표 Ⅴ-1〉처럼 14가구만이 이웃 노인들께 주반을 돌리고 있다고 하여, 사실 마을공동체의 기제사 참여는 점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연자원의 생산이 더 이상 기제사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Ⅴ-1〉 주반 나눔 현황

(단위: 가구)

주반 나눔	나눈다	안나눈다	계
동회천	6	18	24
사회천	8	22	30

3. 물적 요소의 변화와 기제사

마을공동체에서 기제사와 관련하여 변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은 부조의 형태

65) 제주도 농촌마을의 계에 대한 연구는 계집단 참여가 활발할수록 마을내의 사회적 유대가 높다는 측면과 계집단 참여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경제와 분리를 의미한다는 두 갈래의 주장이 있다. 전자에는 伊藤亞人(1982), 강창규(1977) 후자에는 최은영(1984), 김석준(1986: 1987: 1988: 1993)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자가 회천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

이다. 이것은 인적 자원인 이웃 궨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웃들의 기제사 참여 변화와 더불어 상당한 변화를 나타냈다.

1) 부조의 변화

회천마을의 기제사에 대한 이웃의 부조형태 변화는 부조행위가 많이 사라진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부조는 상호관계를 결합시켜주는 역할로 각 의례마다 교환되는 부조금은 사회적 개선 대상이 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66]

현재 회천마을에서 기제사에 참여하는 이웃이 감소는 곧 부조의 감소와도 연결되어 부조를 하는 행위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나마 부조가 오가는 경우는 아주 친분이 있거나 바로 이웃집으로, 간단한 술이나 음료수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남의 집 기제사에 떡부조나 쌀부조 등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떡이나 쌀을 갖고 기제사에 참여하던 시기에는 기제사에 끝까지 참여하여 음복까지 끝내고 떡반까지 받아서 돌아왔다, 지금은 그러한 행위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조의 형태에 있어서도 혈연공동체들의 부조행위가 현금부조 형태로 변화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쌀이나 술부조 등의 현물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물형태가 현금부조 형태보다 금액면에서 절약적이라는 이유가 크게 자리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조의 감소는 주반(酒飯)을 돌리는 행위의 소멸로도 연결되어 나타났다. 기제사를 지내고 있는 회천마을의 총 54가구 중 74.07%가 되는 40가구가 동네에 기제사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있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눠주고 있는 가구조차도 매우 근접한 이웃 몇 가구와 동네 노인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을 뿐이었다.[67] 일종의 거래현상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에 이르러 회천마을은 노동력을 공유하는 마을공

66) 제주지역의 부조에 대한 연구는 김혜숙(1993)의 연구가 있으며, 김진영(1994)은 제주지역의 각종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방안 연구에서 겹부조 행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67) 10년전 부녀회에서 주반을 돌리지 않기로 시작한 것이 3년전부터는 거의 소멸한 상태였다.

동체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시장상황에서 형성되고 있는 임노동의 관계처럼 이웃의 관계도 이익관계 하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기제사는 근친을 중심으로 혈연자원만을 재생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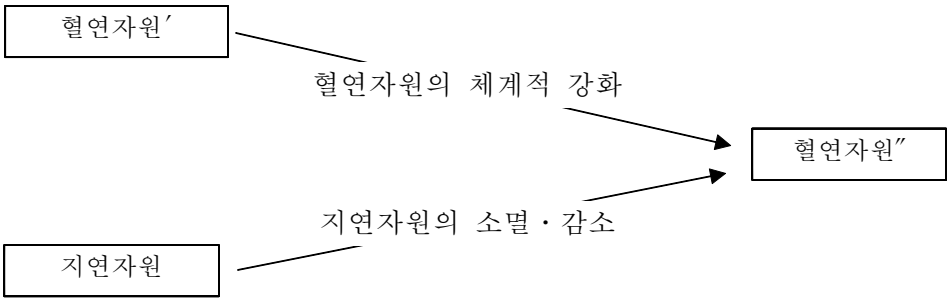
Ⅵ. 결 론

의례는 어떤 사회의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곧 그릇의 모양을 드러내는 물처럼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래서 사회가 변화하면 의례도 변하기 마련이다. 특히 의례가 사회구성원을 통합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을 때 기제사는 혈연의 성원을 규합하면서 주기적으로 혈연자원을 생산·정비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어떠한 의례보다 막강한 힘을 가졌다. 더욱이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기제사는 혈연공동체의 연대만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개별 가구의 기제사에 마을공동체의 참여가 육지부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기제사는 혈연성과 지연성의 두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나타난 귤작물의 보편화와 관광중심의 3차 산업의 발달은 제주농촌지역의 인구를 도시로 유출시켰으며, 농촌내의 노동관계를 임노동의 관계로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것은 외부의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발달하게 된 귤작물과 관광산업의 성격이 농촌내의 노동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 협력관계에 있던 이웃들의 기제사에 더 이상 이웃의 참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이웃의 참여와 부조의 행태가 사라지도록 하여 지연자원의 생산을 억제했다. 그에 비해 혈연공동체는 동일거주 해체, 간접 대면 관계 형성 하에 기제사 대상을 4대봉사에서 3대봉사로 축소하는 한편 참여촌수를 6촌 내지 8촌으로 그 폭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인적 요소를 잘라내고 오히려 축소된 인적 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행태들이 나타났다. 또한 물적 요소에서도 여지없이 산업의 발달이 가져온 측면들을 가미함으로써 산업사회에 적합한 혈연자원을 생산하도록 그 토대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기제사는 실질적 혈연자원만을 생산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지연자원 재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도표 Ⅵ-1〉처럼 나타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표 Ⅵ-1〉 기제사가 생산하고 있는 자원의 변화



혈연자원은 산업사회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다른 어떤 자원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제사는 개인은 사라져도 혈연자원은 사회가 지속되는 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산도구인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단행본〉

姜昌龍 외 共著, 『19세기 濟州社會硏究』, 一志社, 1997.
권기숙, 『신혼여행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98.
김두헌,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 『現代의 家族』, 서울: 乙支文化史, 1975.
김창민,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집문당, 1995.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칠머리 당굿보존회, 1998.
Bellah, Robert N (저)·박영신(역), 『사회변동의 상징구조 - Beyond Belief 외』, 삼영사, 1981.
Van Gennap, A(저)·전경수(역), 『통과의례 - Les rites de passage』, 을유문화사, 1994.
S.Freud(저)·이윤기(역), "토템과 타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申幸撤, 『제주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일지사, 1989.
최길성, 『韓國의 祖上崇拜』, 예전사, 1987.
최재석,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 『韓國家族硏究』, 一志社, 1982.
------, 『韓國家族制度史硏究』, 一志社, 1986.
현용준·현승환, 『한국 고전문화 전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논문〉

姜信杓, "조상숭배와 전통문화", 『한국문화인류학』 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집, 1996.

金光億, “祖上崇拜와 社會組織의 原理: 韓國과 中國의 比較”,
『한국문화인류학』 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김석준,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契集團 참여와 사회적 유대”,
『논문집(사회과학편)』 22집, 제주대학교, 1986.
------, “濟州道 H里 住民의 契集團 參與와 社會的 紐帶”, 『새마을연구논문집』
제4집, 제주대학교 새마을 연구소, 1987.
------, “제주도 농촌주민의 계결사체 참여와 사회적 유대”, 『韓國社會學』
第22輯 겨울호, 韓國社會學會, 1988.
------, “제주도 농촌마을의 계결사체와 사회통합”, 『社會發展硏究』 9輯,
濟州大學校 地域社會發展硏究所, 1993.
Kim, Yang-soon, ″*A STUDY ON THE SHAMANISM AND FAMILY LIFE IN CHEJU ISLAND*″,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0집, 제주대학교, 1985.
김영돈, “濟州島民의 通過儀禮(상중하)”, 『제주도』 32,33,34, 濟州道,
1966.
------, “通過儀禮”,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1973.
김진영,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28집, 제주대학교, 1989.
------, 『제주도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방안 연구』, 제주도, 1994.
김창민,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일상적 형태의 농민저항: 제주도의 넉동배기”,
『濟州道硏究』 제10집 濟州學會 1993.
------,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제주농민의 문화적 저항”,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金泰保, “開放化時代下의 濟州經濟의 對應戰略”, 『地域發展硏究』 4輯,
濟州大學校 地域發展硏究所, 1992.
金泰保, “濟州開發과 域內資金 活用方案”, 『社會發展硏究』 11輯, 濟州大學校
地域社會發展硏究所, 1995.
김혜숙, “濟州道 家庭에서의 夫婦關係”,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碩士學位論文, 1977.
------, “夫婦間의 意思決定에 관한 硏究Ⅰ-濟州道 農漁村 家庭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中心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3, 대한가정학회, 1982.
------, "濟州市 家庭의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硏究: 농어촌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83.
------,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연구", 『논문집(사회과학편)』 17집, 제주대학교, 1984.
------, "濟州島의 一人家族硏究", 『논문집(사회과학편)』 20집, 제주대학교, 1985.
------, "濟州島의 離·再婚 硏究", 『논문집(사회과학편)』 22집, 제주대학교, 1986.
------,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여성을 중심으로",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34집, 제주대학교, 1992.
------, "濟州島 家庭의 婚姻硏究",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3.
David J. Nemeth, 『*The Architecture of Ideology-Neo Confucian Imprinting on Cheju Island, Korea*』,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7.
문무병, "濟州島 굿의 演劇性에 관한 硏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 "濟州島 堂神仰 硏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논문, 1994.
박영길, "지방화시대의 씨족집단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한국사회학회, 1997.6.
宋成大, "濟州市의 人口成長에 관한 考察", 『논문집(사회과학편)』 제20집 제주대학교, 1985.
신행철·강세현, "마을" 濟州文化資料叢書 5, 『濟州의民俗Ⅴ-民間信仰·社會構造』, 濟州道, 1998.
안미정,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安浩龍, "해제 - 조상제사(조선전기)", 『朝鮮時代儀禮資料集成Ⅱ-祖上祭祀1』,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7.

李起旭, “濟州道 農民經濟의 變化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人類學科 博士學位論文, 1995.
李文雄, “濟州島 堂祭에 나타난 血緣性과 地緣性”, 『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1991.
이창기, “濟州島의 人口成長”, 『耽羅文化』 창간호, 濟州大 耽羅文化硏究所, 1982.
------, “濟州島 家口의 크기”, 『耽羅文化』 6, 濟州大 耽羅文化硏究所, 1987.
------, “濟州島의 祭祀分割”, 『韓國의 社會와 歷史』, 一志社, 1991.
------, “濟州島의 社會文化的 特性과 環境-挑戰·適應·超越의 메카니즘”, 『濟州島硏究』 9, 濟州島硏究會, 1992.
------, “家族과 親族”, 『濟州道』 2, 濟州道, 1993.
------, “19세기 말 제주도의 가족구성”,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제46집, 한국사회사학회, 1995.
------, “제주도의 가족제도의 특징 - 재산상속과 제사상속”, 신행철 외 공저,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
------, “가족과 친족”, 『濟州의 民俗Ⅴ-民間信仰·社會構造』, 濟州道, 1998,
전경수·한상복,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濟州島硏究』 13집, 濟州學會, 1996.
정순우, “조선시대 제향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제53집,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 지성사, 1998.
조성윤, “정치와 종교”, 『사회와 역사』 제53집,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 지성사, 1998.
조혜정,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외, 심설당, 1982.
崔吉成, “韓國 祖上崇拜의 연구-연구사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崔吉成, “祖上崇拜의 韓日比較”, 『한국문화인류학』 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崔根德, “祖上崇拜와 儀禮”, 『한국문화인류학』 1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86,
최은영, "한국농어촌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계", 『인류학논집』 7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84.
최재석, "濟州島의 長男家族", 『亞細亞 硏究』 19-2, 亞細亞問題硏究所,
1976.
------, "濟州島의 部落內婚과 親族組織", 『人文論叢』 23, 高麗大學校,
1977a.
------, "濟州島의 婚姻制度와 그 社會的 意義", 『亞細亞女性硏究』 16,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1977b.
------, "濟州島의 祖上祭祀와 親族構造", 『行動科學硏究』 3,
高麗大學校 行動科學硏究所, 1978a.
------, "濟州島의 妾制度", 『亞細亞女性硏究』17,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1978b.
------, "濟州島의 養子制度", 『人文論叢』 23, 高麗大學校, 1978c.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유교문화의 지속과 변용: 사회사적 조명』, 1998년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998.
현용준,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Ⅰ)", 『논문집』 2집, 제주대학교,
1970a.
------,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Ⅱ)", 『국문학보』 3. 國語國文學會,
1970b.
------, "家族",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査報告書』, 濟州島, 197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타 자료〉

1997년 동회천 마을 통적부
1997년 서회천 마을 통적부
濟州大學校 國語敎育學科, 『白鹿語文』 10집, 國語敎育學會, 1994.
1997년도 제주도 통계연보
1997년도 제주시 통계연보(Statistical Year Book)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patial Planning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Korean Rural Community)』 제1차년도 보고서(1994), 제2차년도 보고서(1995), 제3차년도 보고서(1996)
보건사회부, 『가정의례해설』, 19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감사의 글〉

길을 달렸다. 시인 윤동주가 그랬을 것처럼 차 앞 유리너머로 내게 달려드는 길에다 언제나 많은 생각과 언어들을 내뱉었다. 그 생각과 말들은 어디서 자리잡고 어떻게 꽃피웠을지…. 나는 그 길을 11년이나 달렸다. 처음에는 완행버스에 몸을 실어서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달팽이처럼 조그만 내 차에 몸을 실어서 달렸다.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유적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수도 없이 되묻곤 했다. 그것들은 항상 내게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냐고 물었고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그것들은 내 어린 시절의 꿈과 지나온 기억 속에 가인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언제나 내게 두 개의 영상이 되어 다가왔다. 이곳을 본능처럼 좋아하던 어린 시절의 나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현실의 나, 그리고 때로는 4·3에 아버지를 잃고 불타는 집 앞마당에서 울고 있는 엄마의 어린 시절과 지금 막 그것에 대해 슬퍼하기 시작한 현실의 나 등. 나의 무의식 속에 항상 자리하면서 나타나는 과거의 영상들은 언제나 나를 붙들어 맸다. 어느 날은 우연한 현지조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그 집 자손이 살아있어서 이제 4·3을 조사하러 다니는구나' 하시면 흘리는 눈물은 나를 더 많은 생각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늪에서 자유로워지려고 여행도 하고, 시큰둥해지는 날에는 관음사도 자주 찾았다. 거기에 가면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던 외조부가 나타나, 나에게 자유로워지는 법을 말해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내 머리 속의 자유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어느 무명 화가의 '지장보살도'라는 화폭에서 느껴지던 화가의 고달픈 수련처럼 자기 수련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자유 수련의 연습이 이번 논문이 아닌가 한다. 그 연습의 길에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다. 언제나 나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신 조성윤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 지도 교수님 처럼 꼼꼼히 읽고 지적해 주신 김진영·이상철 교수님,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헤매일 때 그 방법을 가르쳐주신 신행철 교수님, 김석준 교수님, 정대연 교수님께 고마움의 마음 한 조각을 전한다. 특히 이상철 교수님의 속내 배려를 다 터득 못했던 나의 부덕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책해본다. 그리고 마을조사에 도움을 주신 고병효 서회천 통장님, 최종률 동회천 통장님, 작목반 김태석 회장님, 전호범님과 허언님 등 마을의 원로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특히 아픈 얼굴을 안스러워 하시며 민간요법에다 약초까지 마다 않고 캐어다 주신 최종률 통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대학원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이곳에서 나에게 대학원 동료가 되어준 경남대 친구들 상엽, 상완, 상우, 선학이와 학내 대학원 친구들 지병, 경진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문제제기에서부터 꼼꼼한 토론자가 되어준 문형만 선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내 작업에 도움을 주었던 후배 재석, 선미, 수미, 희 그리고 새로운 일을 모의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재현, 용현, 현정이 모두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이다. 문준섭군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도 나에게는 근심을 하나 더는 계기였다. 끊임없이 공부하려는 나의 친구들 영신, 순주, 영삼, 훈혁이와 여성투사 경란이, 이제 막 하나의 통과의례를 치른 은영이, 결원이에게도 격려를 보내며 유리 어머니 박삼신 여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음을 다해 봉사를 해도 모자란 부모님, 언니와 형부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은영이, 남동생 명조는 수식어를 달 수 없는 존재들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 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5월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병원을 데려다주기 위해 새벽잠을 마다 않던 남동생과 그 아픔을 함께 하려던 부모님의 노고에 머리를 숙인다. 끝으로 내 삶의 그릇에 사랑과 용기와 초연을 담아준 그 분에게도 내가 만들어 가는 자유의 한 조각을 드리고 싶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